ハ 5
2709
1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略鈔序

昇門傳教臨壇賜紫明義大師思齊述

修身者何戒律而已矣融心者何圓覺而已矣始嚴戒律終顯圓覺并是二者予猥受於先淨慧大師其諱門馬姑以所聞從事兼講指歸途於晚歲樂圓覺爲要說其祖演章句即圭峯定慧禪師略疏二卷略鈔六卷疏以通經鈔以通疏探賾而索隱辭簡而義博則備之裴相國序道固師是流至于今今之駕說者莫不以茲鈔爲司南乎思齊懵昧韋敷斯教常懼聖言紛於水鶴切慮傳者駁於魯魚因與武林法師仲希諮度衆本訪對輿典循尊古卑今之致竊及史闕文之旨約定元鈔將事刋勒門人子章力模方板僶俛揮振庸詎是非非也不削則削是也乃本其本後將斯文而覺世者無以不繼志而罪我乎如

昭和九年五月三〇日賜来

八5
2709
1

志我者則庶幾乎如來圓覺耀無窮矣圭峯
章句導無極矣時皇宋康定二年辛巳歲杓
建鶉喙月望日謹序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略疏序

金紫標大夫中書侍郎同書門下平章事充集賢殿大學士裴休撰

龍沙章江禪院傳法沙門如山註序

裴公河東濟縣人登進士甲科應賢良方正
官至平章政事先世名許玄度建越州塔未
終而化後託梁武之孫姓蕭名詧因訪曇彥
禪師爲入定觀明其宿因師云許玄度來何
暮昔日浮圖今如故後衆請師修龍興大殿
師云非吾所爲三百年後自有非衣功德主
遂銘之至唐二生爲裴休果如其言科分
此序爲三 初敘理讚法三 初深經宗體

四 初約法直指

夫血氣之屬이 必有知ᄒᆞ고 凡有知者ㅣ 必同體ᄒᆞ니 所謂眞淨明妙ᄒᆞ며 虛徹靈通ᄒᆞ야 卓然而獨存者也ㅣ니 ○血氣滋運一切同體故曰屬血氣 明等皆具足於同體中在聖不增在凡不減故曰獨存 ○四大氣分 ᄲᆞᆫ엣 類ᄅᆞᆼ반ᄃᆞᆫ 가ᄃᆞᆫ 아로미 있고 ᄃᆞᆯ의 아ᄅᆞᆷ 있ᄂᆞᆫ 거시 반ᄃᆞᆫ 體ᄒᆞᆫ 온 眞 잔 實 ᄲᆞᆯ ᄒᆞ며 조ᄒᆞ며 ᄇᆞᆯ그며 微 ᄆᆡᆼ 妙 ᄆᆞᆯᆼᄒᆞ며 虛 ᄒᆞᆼᄒᆞ며 靈 ᄅᆞᆼᄒᆞ며 通 ᄐᆞᆼᄒᆞ야 卓 ᄯᆞᆨ 然 ᄉᆞᆫᄒᆞ야 卓 ᄯᆞᆨ 은 ᄲᆞᆫ로 난 양이 ᄒᆞ오 ᄉᆡ 있ᄂᆞᆫ 거ㅅᆞᆫ ㅣ라 二稱謂隨宜 是衆生之本源故로 曰心地오 是諸佛之所得故로 曰菩提오 ○二是字皆指上文眞淨明等揔是諸佛衆生心地菩薩本源同得故經註云諸佛光嚴住持即衆生淨覺妙明心地是也 交徹融攝故로 曰法界오 ○會上十法界身心聖凡交徹理事融攝同歸寂滅平等本際 寂靜常樂故로 曰涅槃이오 不濁不漏故로 曰清淨이오 不妄不變故로 曰眞如ㅣ오 離過絶非故로 曰佛性이오 護善遮惡故로 曰揔持오 ○護善有不失之功內持萬德遮惡有不入之義外遣百非梵語陁羅尼此云揔持 隱覆含攝故로 曰如來藏이오 ○眞如隱覆在藏識之中亦能含攝恒沙性功德 超越玄悶故로 曰密嚴國이오 ○超越重玄之悶證秘密妙莊嚴域

此上十義收歸 統衆德而大備하며 爍群昏而
別教之極談 獨照故로 曰圓覺이니 其實은 皆一心也니라 ○揔
結上文義皆歸 ○ 이 衆중生생이 根근源원
圓覺之妙心 일시니 오되 心심地띵오
이 諸졍佛뿔ㅅ 得득하샨 거실시니 오되 善
뽕提뗑오 서르ㅅ로 가자 펴실시니
오되 法뻡界갱오 寂쩍靜쩡하며 常썅樂락
홀시니 오되 涅녈槃빤이오 호리디 아니하
며시디 아니하며 變변하며
진ㅊ디 아니하며 淨쩡이오 거
如셩ㅣ오 허믈여희며 오음 그츨시니 오
되 佛뿔性셩이오 善쎤을 관슈코 惡학을 마
골시니 오되 揔종持띵오 그ㅅ기 두프며 머
구머시니 오되 如셩來링藏짱이오
기ㅍ픈 되 견널시니 오되 密밇嚴엄國귁이오
한 德득을 모도아 거ㄱ ㅈ며 한 어드우믈 뗴

야하오 사비칠시니 오되 圓원覺각이니 그實씰은 다하ㅎ ㅁ ㅅ이라 二派迷 悟而括
因源二 緣起殊途 初背之하면 則凡이오 順之하면 則聖이며
迷之하면 則生死ㅣ 始고 悟之하면 則輪迴ㅣ
息하ㄴ니라 ○背뻥叛빤하면 凡뻠夫붕ㅣ
오 順쓘하면 聖셩人신이며 모ㄹ면 生싱
死씅ㅣ 비ㄹ고 알면 輪 後會行 從要
룐迴횡ㅣ 그ㅊ ㄴ니라 親而求之
하면 則止觀定慧오 推而廣之하면 則六度萬行
이니 ○親近隨順止觀定慧是本覺之內薰
推究止觀定慧而開廣之則成六度萬行是
圓覺之妙用 引而爲智然後에 爲正智하고 依而爲
因然後에 爲正因하ㄴ니 其實은 皆一法也라

○引依六度萬行爲正智正因上來皆以任持自性成究竟覺從因至果皆遵稟一法之規範○갓가이求꿈ᄒᆞ면止징觀관定평慧휑오ᄒᆞᄂᆞᆫ定평의다른일후ᄆᆡ
也휑오■止징ᄂᆞᆫ定평의다른일후ᄆᆡ오觀관은慧휑의다른일후ᄆᆡ라ᄉᆞᆫ처섬닷고ᄆᆞᆯ늘오ᄃᆞ止징觀관이오ᄆᆞ大ᄆᆡ일우믈
늘오ᄃᆞ定평慧휑라因인이正정과助죵왜잇ᄂᆞ니이正정ᄒᆞᆫ닷고밀ᄉᆞ늘오ᄃᆞ親친이
혀라■ᄆᆡ러니피면六륙度뚱萬면行형이니
智딩사ᄆᆞᆫ後쁑에ᄉᆞ正정智딩ᄃᆞ오ᄇᆞ
터因인사ᄆᆞᆫ後쁑에ᄉᆞ正정因인이四뀡
ᄃᆞ외ᄂᆞ니그實씲은ᄃᆞ라ᄒᆞᆫ法법이라聖凡
而該果海二

初背進成差終日圓覺而未嘗圓覺者ᄂᆞᆫ
凡夫也○下凡真隨妄轉唯背無順持
珠作丐所謂衆生日用而不知也
欲證圓覺而未極圓覺者ᄂᆞᆫ菩薩也○具足

圓覺而住持圓覺者ᄂᆞᆫ如來也○證者謂菩薩欲
歷地位階梯等覺已前細念未斷故曰未極
具足而住持者唯佛與佛洒能究盡安住任
持○終종日실ᄃᆞᆫ록圓원覺각ᄆᆞᆫ홀ᄒᆞᄂᆞᆫ凡뻠夫붕ㅣ오圓
也원覺각을證징ᄒᆞ고져ᄒᆞ
極끅히ᄆᆞᆫ홀ᄒᆞᄂᆞᆫ菩뽕薩삻이오圓원覺각
이ᄀᆞᆺ圓원覺각애住뚕
來랭ㅣ시니■住뚕持띵ᄒᆞ시ᄂᆞᆫ便뻔安한ᄒᆞ如
住뚕ᄒᆞ야가後쁑即本
져이실ㅣ시라安立
捨圓覺ᄒᆞ면無三乘ᄒᆞ고○反顯六道性中皆
具足圓覺不離圓覺有六
道即是終日圓覺而未嘗圓覺之義六道受
生更無別法謂迷此本覺妙心流成三界業
果故云離此圓覺別無六道可得三乘聖位
亦無別法但悟此覺心幽感證真成無上道

非圓覺이면 無如來ㅎ고 泯圓覺ㅎ면 無真法ㅎ니
其實이 皆一道也ㅣ라 ○裴公該而 ○圓覺과 收之不出一道
삼승이 고 원각과 아니면 如來ㅣ 리면 三
乘이 고 원각과 아니면 眞實이 ㅅ 次
法이 ㅅ 니고 實은 ㅎ 道ㅣ라 了
義因由三 三世諸佛之所證이 蓋證此也
初究實無異

ㅣ시며 如來ㅣ 爲一大事ㅎ샤 出現이 蓋爲此也
ㅣ시며 三藏十二部一切脩多羅ㅣ 蓋詮此也
ㅣ시니라 ○三世諸佛同證圓覺非別有法
如來爲一大事因緣故出現於世亦無別事
即此圓覺爲一大事也三乘十二分 ○三世
教一切契經皆詮圓覺更無別法

諸佛ㅅ 證ㅎ샤 이를 證ㅎ시며
如來ㅣ ㅎ큰 이를 爲ㅎ샤 現ㅎ시며
샤미 이를 爲ㅎ샤 法華에 니르시
샤ㅣ 諸佛이 오직 ㅎ큰 일 因ㅎ 緣ㅎ
시며 ㅅ 法華에 니르시 因ㅎ 緣ㅎ 전
ㅎ큰 世間에 나 現ㅎ시ㄴ니라 ㅎ시
니라 ■三藏十二部 脩多羅ㅣ 切
이를 니르시니라 次隨機 有殊

然이나 如來ㅣ 垂
教ㅎ샤 指法이 有顯密ㅎ시며 ○顯說脩多羅密示陀羅尼 立
義ㅣ 有廣略ㅎ시며 ○就辨音章二十五輪觀行相爲略 爲廣就威德章三
粗可明矣 乘時ㅣ 有先後ㅎ시며 ○華嚴頓開智眼不歷諸漸乘時先也
涅槃直指人心不務遠說乘時後也 當機ㅣ 有深淺ㅎ시니 ○對文殊破
無明言簡而當機深者也對金剛藏破無明
辭繁而備機淺者也圓覺一法而該備八義

○그러나 如來ㅣ 그 모든 우리 사람이 번득 홀연히 祕密한 法을 그 치 사람이 이미 본래 있는 것을 호연히 깨닫게 하시며 義理를 세우시며 時節을 따라 先後를 나누시며 當機ㅣ 깊고 얕음을 後正明了義 非上根圓智 과 더불어 이미 하시니 면 其熟能大通之 오리 故로 如來ㅣ 於光明藏 에 與十二大士 와 密說而顯演 하시며 潛通而廣被 하시며 以印定其法 하시며 爲一切經之宗也 니라 ○密說則非器不傳 潛通後進 顯演則觀機授法 廣被當來 以圓覺一印印定爲諸經之宗

○上 根 근 圓 원 智 지 通 통 하 리 오 그럴 이 如 여 來 래 ㅣ 光 광 明 명 藏 장 에 十 십 二 이 大 대 士 사 와 祕 비 密 밀 히 니 르 시 며 顯 현 히 펴 사 그 스 가 로

通 통 하 시 며 潛 잠 通 통 하 시 며 廣 광 切 체 經 경 에 으 뜸 을 印 인 定 정 하 시 니 라

後製疏本末六初師敎兼遇圭峯禪師 ○終南一峯其形如圭

師遯其下故以稱焉 得法於荷澤嫡孫南印上足道圓和尚 ○西京河南府有荷澤寺因所居得驗故曰荷澤神會禪師居之乃六祖高弟先六祖曰吾有一物無名無字神會出云是諸佛之本源神會之佛性祖云與作一物即不中汝喚作佛性若此子有片瓦遮頭只是成得箇知解宗徒會乃自立爲七祖此下潞州法如禪師如出荊南惟忠禪師傳法如之印蓋出南能宗下故曰南印道圓和尚乃南印之門人圭峯於道一日 隨衆僧 이 因 圓得法此明起敎之因

齋于州民任灌 의 家 니 더 居下位 하 야 以次 로

受經ㅎ고 齋ㅇ染削之後에 隨衆ㅎ야 赴供以臘小居下位ㅎ고 遇圓覺子義ㅎ야 卷末終軸ㅎ야 感悟流涕ㅎ고 歸ㅎ야 以所悟로 告其師ㅎ온 대 師ㅣ 撫之曰ㅎ되 汝ㅣ 當大弘圓頓之教ㅎ리로다 此經은 諸佛이 授汝耳ㅅ다ㅇ主峯禪師ㅇㅣ 荷澤떡 嫡孫손 南南印인上尚씨 法법을 得득ㅎ야 弟뗑子종 神씬會뵝禪씬師승ㅣ 사ㄷㅣ라 嫡떡孫손은 正정室실에 孫손子종ㅣ라 南남印인은 惟웡忠등禪씬師승ㅣ ㄴㅣ 神씬會뵝ㅅ 弟뗑子종 法법如셩의 印인을 傳편ㅎ야 ㄴㅣ 南남宗종 六륙祖종씨 셔날씨 南남印인이라ㅎ니 ㄴ라 上썅足족은 法법ㅣ 弟뗑子종ㅣ라ㅎ니 ㄴ라 道쯩圓원은 南남印인門문人신이

一힘日실에 衆종僧승을 조차 州종民민任심灌관의 ㅈ비齋쟁ㅎ되 ㄷㅣ 아랫位웡에 이셔 次종第뗑로 經경을 바들제 圓원覺각子쯩義웡를 맛나 卷권ㅅ軸쭉을 뭇ㅈㅣ 몬ㅎ야 셔아로 몸感감動뚱ㅎ야 눈ㅅ물을 흘리고 ㄷ라와 셔아로 론고ㄷ로 ㅅ승씨ㅣ 르ㅍ ㅅ승이 慰웡勞로ㅎ야 닐오되 세반ㄷ기圓원頓돈 教교를 ㄱㅣ ㅅㅣ리로다 이 經경은 諸졍佛뿛이 너를 심 二勵志 傳通 禪師ㅣ 旣佩南宗密印ㅎ야 受圓覺懸記ㅎ고 於是예 閱大藏經律ㅎ며 通唯識起信等論ㅎ야ㅇ經律論爲三藏唯識乃戒賢法師所傳起信是馬 鳴菩薩造 然後에 頓轡於華嚴法界ㅎ며 宴坐於圓覺妙場ㅎ야 究一雨之所霑ㅎ며 窮五教之殊

致ㅎ야 ○後閱華嚴如乘良馬頓策其轡更不他適詳其本末與圓覺無差遂游心宴坐於妙場究如來一味之法兩五教者小乘教始教終教頓教圓教差別不同故曰殊致

禪師ㅅ이ㅣ ㅎ야 ○마南南宗종ㅅ秘빙密밀ㅎ고 印인을 ㅅ 圓원覺각懸현記긩를 受쓩ㅎ고 懸현記긩는 미리 授쓩記긩ㅎ을ㅅ 이에 大땡藏짱經경律률을 보며 唯윙識식起킹信신等등論론을 通통ㅎ야 그리ㅎ 後쓩에 華황嚴엄法법界갱에 셕솜머를 우며 圓원覺각妙묭場땅에 便뻔安안히 안자 ㅎ비의 저저ㅅ 묻窮궁究귬ㅎ며 다ㅅ 敎쓩ㅎ 공究귬ㅎ야 三正明 偈述 乃爲之疏解ㅎ니 凡大疏三卷大鈔十三卷略疏兩卷小鈔六卷道場偈讚儀一十八卷이 並行於世ㅎ노니 ○在智

炬寺幷退居草堂造此疏鈔等○疏소解쎙를 밍ㅇ기니들 잇땡鈔쵱十씹三삼卷권과 大땡疏소二삼卷권과 大권과 小쇼鈔쵱六륙卷권과 畧략疏소兩량卷권과 道뚐場땅偈슝證징儀읭一힐十씹八빧卷 四廣彰 圓善 其敍敎也ㅣ 圓ㅎ며 其見法也ㅣ 徹ㅎ며 其釋義也ㅣ 端如析薪ㅎ며 其入觀也ㅣ 明若秉燭ㅎ며 ○剖釋其義如析薪析字從木介徑直分破故曰端毛詩云南山析薪匪斧不克今以疏喻於斧經喻於薪入三觀之妙門如秉炬火 其辭也ㅣ 極於理而已오 不虛騁ㅎ며 其文也ㅣ 扶於敎而已오 不苟飾ㅎ며 ○辭研性理不是虛誕馳騁文扶聖敎不是苟簡華飾 不以其所長

으로 病人故로 無排斥之說ᄒᆞ며 不以其未至로
蓋人故로 無胷臆之論ᄒᆞ야 ○不以已長而疾惡他人所短故無
毀斥之說若以已短而蓋覆彼人所能是爲臆度之論圭峯皆離此過 蕩蕩然
히 實十二部經注見經中之眼目이며 三十五祖之
骨髓며 ○竺乾四七唐土二三兼之荷澤生靈之大本며 三世
之達道니 後世예 雖有作者ㅣ라도 不能過矣
리니 ○그 教ᄀᆞᆯᄒᆞ려 ᄒᆞ면 그 法법보ᄆᆡ
ᄉᆞ무ᄎᆞ며 그 뜯사교ᄆᆡ 고다나모뻐ᄃᆞᆺᄒᆞ며 그
마리 觀관애 드로ᄆᆡ 불가燭촉자 본ᄃᆞᆺᄒᆞ며 그
ᄆᆡ 理리예 至지극ᄒᆞ ᄆᆞ 極극홀ᄉᆞ로ᄆᆡ 오虛허히
ᄃᆞᆯ이지 아니ᄒᆞ며 그 教ᄀᆞᆯᄒᆞ려 ᄒᆞ면 그 잘ᄒᆞ오ᄆᆞ로
ᄆᆡ 오ᄀᆞ차 하ᄉᆞ무ᄆᆡ 아니ᄒᆞ며 그 잘ᄒᆞ오ᄆᆞ로

ᄂᆞ몰病뻥ᄃᆞ이ᄂᆞ ᄒᆞᆯᄉᆡ 아ᄂᆞᆫ말
업ᄉᆞ며 그ᄂᆡ르ᄃᆡ ᄆᆞ로ᄒᆞ오ᄆᆞ로ᄂᆞ ᄆᆞ로ᄃᆞᆷᄃᆡ 아ᄂᆞ
ᄒᆞᆯᄉᆡ 臆ᄒᆞᆨ度ᄯᆡᆨ앳議의論론업서 헌ᄃᆞᆯ히 實
ᄡᆞᆷ로 十ᄡᆞᆷ二ᄉᆡᆼ部뻥經경엣 眼안目목이며
三삼十ᄡᆞᆷ五ᄋᆞᆼ祖조人ᄉᆞ骨ᄀᆞᆯ髓ᄉᆡᆼ며 人三삼
十ᄡᆞᆷ五ᄋᆞᆼ祖조ᄂᆞᆫ西셍域ᄒᆞᆨ에 迦강葉셥과
阿항難난과 商ᄉᆡᆼ那낭和황修슝와 優움波
방毬ᄏᆞᆨ多당 ᄒᆞ와 提뗑多당迦강와 彌밍遮쟝
迦강와 佛뿔陁땅難난提뗑와 伏뻑陁땅蜜
밇多당와 脇협尊존者쟝와 富붇那낭耶양
奢샹와 馬망鳴명菩뽕薩삻와 毗삐羅링尊
존者쟝와 龍룡樹쓔菩뽕薩삻와 迦강那낭
提뗑婆빵와 羅랑睺흏羅랑와 僧숭伽깡難
난提뗑와 僧숭伽깡耶양舍샹와 鳩굼摩망
羅랑馱땅와 闍쌍夜양多당와 婆빵修슝盤
빤陀땅와 摩망拏낭羅랑와 鶴뺙勒륵那낭
夜양遮쟝와 師ᄉᆞᆼ子ᄌᆞᆼ尊존者쟝와 舍샹那
ᄂᆞᆼ婆빵斯ᄉᆞᆼ多당와 優움波방掘꿇와 婆빵

須슈蜜밀와僧승伽깡羅랑叉챵와達딻磨망와中듕國귁에達딻磨망와慧휑可캉와僧승璨찬과道뚕信신과弘휑忍신과惠휑能능과神씬會휑왜라 ▣ 生싱靈령의 근根
근源원이며 ▣ 四승依의 生싱이다 靈령호識식을 머구머 이실시닐 오직 生싱靈령이라 ▣ 三삼世솅옛ᄉᆞ ᄆᆞᆫ 後쑝世솅예 비록 지ᄉᆞ리 이셔도 能능히 ᄃᆡ 으ᄃᆡ 몯ᄒᆞ리니

五其道不測 其四依之一乎ㅣ ᄃᆡ 或淨土之親ㅣ ᄃᆡ 聞乎ㅣ ᄃᆡ 何盡其義味ㅣ 如此也오 ○ 涅槃四依品云依法不依人依義不依語依智不依識依了義不依不了義又唐稱生肇融叡四法師爲四依故裴公亦稱羨圭峯爲四依之一或在淨土與十二大士親聞如來所說乎 或曰 設難 道無形ᄒᆞ야 視者ㅣ 莫能覩ᄒᆞ며 道無方ᄒᆞ야 行者ㅣ 莫能至ᄒᆞ니 況文字乎ㅣ 在性之而已니 ○ 悟性之者不立文字直指人心 豈區區數萬言으로 而可詮之哉리오 ○ 그 四승依휭ᄂᆞᆫ 法법을 ᄇᆞᄅᆞ몸ᄇᆞᆫ고 ᄆᆞᄅᆞᆷ ᄇᆞᆫ고 ᄉᆞᄅᆞᆷ ᄇᆞᆫ디 아니ᄒᆞ며 了룡義의ㅣ ᄇᆞᆫ디 아니ᄒᆞ며 智지ㅣ ᄇᆞᆫ고 識식을 ᄇᆞᆫ디 아니ᄒᆞ며 了룡義의를 ᄇᆞᆫ고 不붇了룡義의를 ᄇᆞᆫ디 아니ᄒᆞᆯ시라 唐땅에서 生싱과 肇쵱와 融융과 叡예와 ▣ 四승依휭라ᄒᆞ니라 ▣ 시혹 淨정土통에 親친히 ᄃᆞ른 다ᄉᆞᆫ 데 그 義의와 ▣ 아ᄉᆞᆯ다오 ᄆᆞ이 곤거ᄂᆞᆫ 或휙이 닐오ᄃᆡ 道뚕ㅣ 얼굴업ᄉᆞ 보라 能능히 보다 몯ᄒᆞ며 道뚕ㅣ 能능히 ᄆᆞᄅᆞ미 ᄉᆞᆫ 方방所송업서 行힝ᄒᆞ리

루니라 六假問遣疑二 初敘疑 後遣
라오 釋二 初依教道釋疑三 初以
末統 對曰噫라 是不足以語道也니로 前에
不云乎아 統衆德而大備하며 爍群昏而獨照
者ㅣ 圓覺也ㅣ시니 蓋圓覺은 詎出一切法하고
一切法이 未嘗離圓覺ㅎ시니 是 經律論三藏
之文이 傳于中國者 [illegible] 其所詮
者는 何也오 戒定慧 [illegible] 慧而求
者는 何也오 圓覺而 [illegible] 法也ㅣ로
다 張萬行而求之者 [illegible] 根器ㅣ

異也ㅣ시니라 ○上根之士 不待言詮 ○對답
中下根劣 故廣張義相 引令悟入 ○憶힘
答답ㅎ야 늘오디 憶힘는 애와 더
ㅎ는 소리라 ■ 아 足족히 道도니 근다 몯ㅎ
리로다 알띠이니 니근 녀 한 德덕을 모도아
ㄱ ㄱ 며 한 어드우믈 뗘아ㅎ오ㅅ 비추는
거시 圓원覺각이리ㅎ니 圓원覺각은 能능
히 一힗切쳉法법을 내오 一힗切쳉法법이
잢간도 圓원覺각으로 三삼藏짱ㅅ 그리 中듕國귁
經경律률論론에 傳뗜ㅎ니 五옹千쳔餘영卷권이니 그늘
온 거ㅅ 믄 믄ㅅ 고 戒갱定뗭慧혱를 닷가 求꿍ㅎ노 거ㅅ 믄 믄ㅅ
戒갱定뗭慧혱 근 마니라 圓원覺각ㅅ 근 마니라
고 圓원覺각ㅅ 근 마니라 圓원覺각 아ㅎ는 法
법이로ㅅ 萬만 行행을 求꿍ㅎ샤 몬엇
ㅎ오 衆중生생이 根근器킹ㅅ 다를ㅅ 시니라
次以 疏 然則大藏이 皆圓覺之經이오 此疏는
類經

乃大藏之疏也ㅣ니 ○大藏即是一大圓覺 ○ㄱ권면 大팽藏짱이라 圓원覺각經경 ○오아 疏소는 大팽藏짱ㅅ 疏소ㅣ니 後結商 羅五千軸之文ㅎ아 而以數卷之疏

三 通之ㅁ오 豈不至簡哉ㅣ리오 何言其繁也ㅣ오 ○五오로 相상通통ㅅ ㄱ를 數수卷권疏소로 ㅁ로 ㅎ야 ㅁ로 至짱極끅ㅅ 적지 아니ㅎ리라

修約宗 過重淨 及其斷言語之道ㅎ며 ㅎ야 ㅁ로 ㅎ야 ㅁ로 ㅎ야 ㅁ로

可惟人界中可脩苦心勞慮攝歸正念趣向菩提師教聞薰前言往行悟入圓覺雖六道皆爲苦趣然作佛作祖亦從人道但盡凡心別無聖解人而不爲無柰之何也已矣○嗚呼라 生靈의 가엾고 가엾고 鳥獸의 가엾고 獨은 새놀라는 양이오 戒는 修羅라는 뵈야 호 은 중생들 눈앞이라 ■ 嗚呼라 ■ 嗚呼라 ■ 鬼神은 어드워 왼 苦를 벗지 못하고 獸는 獨은 戒를 스스로 眞心 심호고 諸天은 正정히 즐기지 아니호면 내 엇제 호리 뇨호 마음 스리로 다 ■ 人道ㅣ 能히 호 니 사르미오 호 니 어루만 스물고 터 菩提 예 가 문오 다 ■ 後明陳 休ㅣ 常遊禪師之閫域 야 受禪 其意 師之顯訣 호 야 無以自効 ㄹ 輒直讚其法 호 야 而

普告大衆耳 ㄴ 其他 ㄴ 備乎本序云 호 니 라 ○ 公既入禪師之閫奧受顯了妙訣無以自効親傳之報直讚美圓覺之法其他備盡經中綸貫之旨請觀休 홈 ㅣ 샹녜 禪 선 師 승 ㅅ 閫 콘 主峯本序 ○ 域 휙 은 지 ㅅ 이 오 域 휙 에 ㄷ 들 ㄴ 녀 ■ 閫 콘 은 門 몬 ㅅ 젼 이 오 域 휙 은 지 ㅅ 이 라 ■ 禪 선 師 승 ㅅ 顯 현 호 訣 꿇 을 바 다 ■ 訣 꿇 은 조 ㅅ 로 왼 法 법 이 라 ■ 내 갑 디 몯 호 리 시 곧 그 法 법 을 바 로 시 라 大 땡 衆 중 에 너 비 니 롤 ㅅ 로 미 로 니 그 나 기 에 ㅁ 만 本 본 序 쎙 ㅅ 지 니 라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序

將釋略疏二卷文二　初題目二　一標揔題　二顯述者

終南山草堂寺沙門宗密疏鈔

二本文三　一揔敘大綱三　一顯理二　一示覺之心體二　一辨其要二　一約果德標指心源　二　一舉類

元亨利貞。乾之德也。○疏元亨等者目舉周易乾卦之德而爲類也然此國之俗所宗者羣典極於周易萬物極於乾道世天之貌於地天地就地卑乾

道取是類天地故取則在於儒流故舉儒學兩知之道以類至覺之理令其曉矣既移儒士之風自偃羣庶之草餘喻瑣碎難類真法首標乾德其在茲焉然元亨利貞既是乾之四德今欲顯四德且先顯乾乾道乾者卦之名即周易最初之卦也☰乾卦也如此繫辭云諸乾始於大乾故成神物謂之卦者易緯云卦者掛也言懸掛物以示於人故謂之卦卦但二畫之體雖象陰陽之氣未成萬物之象不得成卦必三畫以象三才寫天地雷風水火山澤之象方謂之卦故繫辭云八卦成列象在其中是也但初有三畫於萬物變通未盡故更重之而有六畫備萬物之形象窮天地之能事故六畫成卦此乾之卦本以象天天乃積諸陽氣而成故此卦六爻皆是陽畫疑相張為陽畫二為陰畫二此既象天不謂之天而謂之乾者天是定體之名乾是體用之稱即用体故說卦云乾者健也言天之體以健為用聖人作易本以教人欲使人

法天之用不法天之體故名乾不名天也天以乾為用者運行不息應化無窮此天之自然之用故聖人當法此自然而施人事亦當寬物成務云為不已終日乾乾無時懈倦是以因天象以教人事故大象曰天行健君子以自強不息象用卦自卦名天是其體訓名君子以自強不息象用卦自卦名天是其體訓名君子以自強不息象用卦自卦名天是其體訓名

物令使開通而爲亨也又當以義協和萬物使各得其理而爲利也又當貞固幹事使物各得其正而爲貞也是以聖人法乾而行此四德故曰元亨利貞也文言曰

元者善之長也

故大哉乾元萬物資始乃統天雲行雨施品物流形大明終始六爲時乘以御天也君子以成德爲行日可見之行也

君子體仁足以長人嘉會足以合禮利物足以和

君子行此四德者

君子體仁足以長人嘉會足以合禮利物足以和

義皆知可貞固足以幹事

子行此四德者

義皆知可貞固足以幹事

既是動用不息之義是陽氣之精粹不同陰體凝靜亦如佛是覺者是菩提之智不同涅槃凝寂之體以元亨利貞喻常樂我淨者然乾陽功用雖廣多無畔利天下萬物而實體之德唯此四故具五常故五常者仁義禮智信也四德元者是仁義禮智信也四德總名是仁義禮智信也四德元者是仁義禮智信也四德總名宗則攝盡儒宗則攝盡儒宗名是仁義禮智信也四德元者是仁義禮智信也四德總名是仁義禮智信也四德元者是仁義禮智信也四德總名

等是別別德之外無別體佛與四德例此亦然

始於一氣

○고 疏始於一氣者推究此乾道之德所從之始始於一氣一氣者道之所宗陰陽天地之根本也謂天道未分陰陽未泮未有天地人物已前但是淳元之一氣故易鈎命訣云天地未分之前謂之一氣(樞人鄭注之華嚴天序道云太極分序陰陽云陽之一氣二儀曚云玄一黃地林辨名權

라 ㅌ氣킹ㅇ分뿐에 ㅂ,ㅊㅈ ㅌ氣킹ㅇ分뿐
은陰 음陽양 天텬 地띵人根ㄹ本본이라

疏常樂下二正明 **常樂我淨은 佛之德也**ㅣ人ㄴㅣㅇ 然佛德無量ㅅ特指此四者謂其五意一者是佛實體之德故二者對揀凡夫妄執常等四倒翻破二乘無常等四倒故三者是四念處觀究竟果故四者諸佛雖說無量法門究竟爲顯此故五者如來二月在娑羅樹四雙八隻中間而般涅槃只爲表此理故初言實體之德者起信論云真如自體相者一切凡夫聲聞緣覺菩薩諸佛無有增減從本已來性自滿足一切功德所謂自體有大智慧光明義故乃至常樂我淨義故名爲如來藏亦名如來法身二對揀凡夫二乘者由凡夫迷自已如來藏法身真如本來常樂我淨故妄計五蘊常樂我淨是故佛於種種經中令修不淨觀苦觀無常觀無我觀以將對治所執生死五蘊常樂我淨(此等上破四倒凡夫記)然猶未顯所迷法身常樂我淨故聲聞等稟此修行雖各證果尚迷法身常等四德是以佛於諸了義大乘經中廣破此見故涅槃經第二云衆生亦爾爲諸煩惱無明所覆生顚倒心我計無我常計無常淨計不淨樂計爲苦以爲煩惱之所覆而生轉想(此上正破四倒)故雖生此想不達其義如彼醉人於非轉處我者即是佛義常(無常上正破二乘)者是法身義樂者是涅槃義淨者是法義(顯眞實四德)汝等比丘云何言有我想流轉生死汝等若言我亦修習無常苦無我等想是三種修無有實義(二略於不就不勝淨但說故言)我今當說勝三修法若者計樂樂者計苦是顚倒法無常計常常計無常是顚倒法無我計我我計無我是顚倒法不淨計淨淨計不淨是顚倒法有如是等四顚倒法是人不知正修諸法(雙此結上四種大二乘世間)亦有常樂我淨出世亦有常樂我淨世間法者有字無義出世法者有字

有義何以故世間之法有四顛倒故不知義何等爲義無我者名爲生死我者名爲如來無常者聲聞緣覺常者如來法身苦者一切外道樂者即是涅槃不淨者即有爲法淨者諸佛菩薩所有正法是名不顛倒以不顛倒故知字知義若欲遠離四顛倒者應知如是常樂我淨云云汝等當知先所修習無常等想非是真實譬如春時有諸人等在大池浴失琉璃寶悉共入水求覓是寶競捉瓦石草木沙礫各各自謂得琉璃寶歡喜持出乃知非真是時寶珠猶在水中有一智人以方便力安徐入水即便得珠汝等比丘不應如是修習無常苦無我不淨想等以爲實義汝等應當善學方便在在處處常修我想常樂淨想復應當知先所修習四法想者悉是顛倒欲得真實修諸想者如彼智人巧出寶珠所謂我想常樂淨想（此倒重上顛倒四德約喻下對二乘四佛先說無我法以倒說以舊醫用乳酪醍醐乳等後說無我法佛以倒說我如來成就無漏復說我乳等）

地後法汝等當知如來亦爾出世降伏邪醫外道唱言無我人衆生壽者外道言我者如蠶食木偶成字耳故佛唱言無我爲調生故爲知時故說有我者如彼良醫善知於乳非如凡夫所計吾我或言如大拇指或如芥子或如微塵如來說我悉不如是是故說言諸法無我實非無我何者是我若法是實是真是常是主是依性不變者是名爲我汝當修習第五卷亦云又鮮脫者名爲不空如水酒酥蜜等瓶雖無水等猶名水酒等瓶鮮脫亦爾不可說空及以不空空者無二十五有及諸煩惱一切有爲如瓶無水則名爲空不空者謂眞實善色常樂我淨不動不變猶如彼瓶色香味觸第七卷如來性品亦云佛告迦葉謂四倒者亦非苦中生於苦想非苦者名爲如來生苦想者謂於如來無常變異捨此苦身入於涅槃（云云有佛性云餘三例法有我即是佛性無性云云世間說我佛性如來非雜食肉身煩惱）迦葉言我從今日始得正見

自是之前我等悉名邪見之人（即據無我葉之為邪言）
（覩有見）後又云先教衆生修無我者為除世
間諸妄見故計我虛妄非眞實故如女人苦
味塗乳令子不飲（忌子病服藥也）後洗乳令飲子
疑不飲等（云云）我今亦說如來藏（云云）第三
十七卷又云師子吼者說一切法悉無常苦
無我不淨唯說如來常樂我淨（疊據上所引重數一番即知重
（權）（歸）（實）（是終）（偏）（引）（極）（之）（教）（會）上來已釋第二意翻對
兩重四倒竟三是四念處究竟果者四謂觀
身不淨觀受是苦觀心無常觀法無我（此四相）
（在）（所）（釋）（普）（眼）（章）（心）（力）（三）（者）（十）（檢）（七）（道）（品）（說）對治計淨等四
倒（小）（此）（乘）（通）（修）（大）又諸法無行經云觀身畢竟空觀
受內外空觀心無所有觀法但有名（即）（智）（此）（論）（說）（亦）
對治計不淨等四倒（乘）（此）（唯）（人）（修）（大）兩重四倒既遣
即顯自體具眞實常樂我淨故名為如來法
身（如）（信）（之）（前）（文）（引）（起）（也）故云究竟果矣天台云深觀念
處即坐道場更不須餘機宜不同故說餘品

（餘）（品）（正）（勤）（等）（者）四據四念處既是對治四倒與前段
觀義亦不殊但緣四念是三十七品之首
修行要門一切衆生從凡至聖通大小乘無
不修習故天台別有四卷念處之文所以佛
臨滅度遺囑弟子唯令依此而修（廣）（遺）（囑）（在）（序）（事）
（說）（分）中是以別標為一門之意四諸佛雖說無
量法門究竟為顯此者唯識論五位中第五
究竟位頌曰此即無漏界不思議（標）（善）（淨）（也）常
（常）（也）安樂（樂）（解）（脫）（涅）（槃）（也）（是）（身）（大）（牟）（尼）（名）（法）（我）（也）五如
來二月在娑羅樹間等者涅槃第三十卷云
善男子以是因緣故我於此娑羅雙樹間大
師子吼師子吼者名大涅槃善男子東方雙
者破於無常獲得於常乃至北方雙者破於
不淨而得於淨善男子此中衆生為雙樹故
護娑羅林不令外人取其枝葉所截破壞我
亦如是為四法故令諸弟子護持佛法何等
為四常樂我淨此四雙樹四王典掌我為四
王護持我法是故於中而般涅槃善男子娑

羅雙樹華果常茂常能利益無量衆生我亦如是常能利益聲聞緣覺華者喩我果者喩樂以是義故我於此間娑羅雙樹入大涅槃善男子師子吼言世尊如來何故二月涅槃二月是春陽之月萬物生長華果敷榮江河盈滿是時衆生多生常想爲破衆生如是心故說一切法俱是無常唯說如來常住不變善男子孟冬枯悴衆不愛樂陽春和液人所貪愛爲破衆生世間樂故演說常樂（結上說之起記）我淨亦爾如來爲破世我世淨故（此下淨例說）說如來眞實我淨言二月者喩於如來二種法身冬不樂者喩於如來無常入於涅槃二月樂者喩於智者愛樂如來常樂我淨（度據爲此即常知佛我潮）滅然兩重四倒揔有八倒其四念處觀既有性相兩重治於八倒即成八行終至成佛即名八德謂法身常等四德是實德示現色身無常等四德是權德（現不淨無我也受陰生滅現苦無常也）（自在現無我也）（涂槍等八等）（輸納那等）故天台云婆羅雙樹四枯四榮正表於此（是枯天榮故旨）（謚紋桂帙謂法性之色（約經說大品）實非是淨凡夫計淨是名顛倒實非不淨小乘計不淨亦名顛倒今觀色種即空空中無淨云何染著則凡夫淨倒破枯念處成色種即假假智常淨云何滯空而取灰斷言色不淨是名二乘不淨倒破榮念處成觀色本際非空非假非淨不淨乃名中道佛表此理故於中間而般涅槃餘三類此（觀愛無常無我心法等例之）故云常等然此眞實四德既具如上諸門義理不同故疏備舉云佛之德也

本乎一心

〇八二十八〇疏本乎一心者上所引起信論中云眞如四德之文是立義分中論主揔立一心爲本於中有心眞如心生滅二門心眞如具常等四德心生滅中始本不二爲究竟覺亦是四德勝鬘等意皆然故知倒正常等並不離一心佛無邊德亦無非一心廣如華嚴經夜摩偈讚品及此疏下釋普賢章初種種幻

化皆生如來圓覺妙心○常樂我淨과 文中所說可檢叙之

텃德득이시니 生생하야 아니호물닐오되 常쌍이오 寂쩍靜쩡호야 覺각知디호물닐오되 樂락이오 自쫑在짱호야 方방所소업수믈닐오되 我앙이오 微밍妙묳히 塵띤勞롬그추믈닐오되 淨쩡이라

○호ㅁㅇ 明根고源원호ㅆ니라

疏소專전一하ㅇ 二명修心成其果과德덕二 一거類

專一氣而致柔호고○乾

道도四과德덕既기始시於어一氣기故고道도門문修슝鍊련專전於어一氣기 道도經경云운專전氣기致치柔유意의云운元원氣기是시自자然연大대道도性 本본靜정默묵柔유弱약故고能능生생於어動동老로子자云운靜정爲위躁조君군 强강剛강勝승弱약柔유勝승剛강故고能능生생剛강能능安안靜정默묵守수柔유弱약故고乘 於어道도不불能능保보壽수命명不불能능成성萬만事사不불能능爲위人인君군 主주和화於어天천下하 故고老로子자云운富부貴귀而이驕교自자遺유其기咎구又우云운 功공成성不불居거 夫부子자云운合합於어自자然연大대道도勤근而이行행之지保보雖수守수弱약綿면綿면不불已이 故고老로子자而이矜긍之지所소代대 解해云운天천下하之지至지柔유馳치騁빙天천下하之지至지堅견 故고老로子자云운知지白백守수黑흑勿물人인

法綿綿若存不縱不抑絶諸造作不運心機合本元氣離太急太遲太麤太沈等名爲和氣陰氣陽氣和通不二故云一也故道經云沖氣以爲和(髓中氣和)(髓如鞭)又云谷(也)養神不死是謂玄牝玄牝之門是謂天地根綿綿若存用之不勤又云抱一能無離乎(生太和道之始)(精氣也)(專氣致柔(順也))(如嬰兒乎又云心使氣曰彊(氣實內專是一明)(上弱殺而彊(彊梁)是謂深根固蒂(以人之精爲氣蒂爲根)又云天得一以清等(萬物)抱一爲天下式莊子云一其性二飾(正)也則養其氣(使不以心合其德(離物)黃庭內景云殊途一會一同歸歸要終一志不久昇虛無(與虛道專空同)(仙体)(則致神)又云正一含華乃充盈(神)(氣)守(紫)(華肇)公云守眞抱一不染外物清虛太一其何有失繫辭云夫乾其靜也專其動也直(直道也)釋曰上所引文皆是儒道修鍊之門專氣而爲要妙之義也(卿注謂者(河上公)(各是)(老子)(郭象)(莊子)(黃庭經)(康伯)○(注繫辭梁丘象子注黃)

(氣)(分)(뿐)(에專)(전一)(힘)

히ᄒᆞ야부ᄃᆞ러우ᄅᆞᆯ닐오ᄃᆞ氣ᄀᆞᆼ分ᄲᅮᆫ에專전一힘히ᄒᆞ야부ᄃᆞ러우ᄅᆞᆯ닐오ᄃᆞ(道)(經경)에ᄅᆞᆯ우ᄅᆞᆯ닐ᄋᆞᆫ다ᄒᆞ니ᄇᆞᆫ디닐오ᄃᆞ本ᄇᆞᆫ來래ᄒᆞ야부ᄃᆞ러ᄋᆞᆫ氣ᄀᆞᆼ分ᄲᅮᆫ은이自ᄍᆞᆼ然연ᄒᆞᆫ큰道ᄃᆞᆼ이ㅣ라性ᄉᆞᆼ이本ᄇᆞᆫ來래ᄒᆞᆫ시能능ᄒᆞ야무유를내ᄂᆞ니道ᄃᆞᆼ아ᄂᆞᆫ사ᄅᆞᆷ부ᄃᆞ라우ᄆᆞ려弱약ᄒᆞᆯ시能능ᄒᆞ야무유를내ᄂᆞ니道ᄃᆞᆼ아ᄂᆞᆫ사ᄅᆞᆷ能능히剛강强강을내ᄂᆞ니ᄃᆞᆫ그ᄇᆞᆫ들至ᄌᆞᆼ極극하安한靜ᄌᆞᆼ하ᄆᆞ至ᄌᆞᆼ極극히부ᄃᆞ러ᄋᆞᆫ氣ᄀᆞᆼ分ᄲᅮᆫ에전하ᄆᆞ뫼화自ᄍᆞᆼ然연ᄒᆞᆫ큰道ᄃᆞᆼ에맛개分ᄲᅮᆫ하ᄂᆞ니功공이ㅣ라ᄒᆞ마ᄂᆞᆫ사ᄅᆞᆷ

二正明 **修一心而成道**ᄒᆞ니ㅣ라○佛果之德旣本乎一心若不修一心而乃別修者豈成佛道如磨甎不成明鏡鍊鐵不得眞金等故清涼大師所說萬行並不

疏修一下

離心但能覺了自心現量畢竟清淨即一念之中萬行備足心不起止也知不起觀也不緣萬境捨也止安不生戒也安心諦理忍也心無間斷進也心體離念法也心之本覺佛也體相無違僧也六度三寶並一心故華嚴經云菩薩修諸佛法淨諸佛刹積集妙行調伏衆生乃至得大菩提悉不離心是故應以善法扶助自心應以精進堅固自心應以忍辱坦蕩自心應以智證絜白自心應以智慧明利自心應以佛自在開發自心應以佛平等廣大自心應以佛十力照察自心又云菩薩應知自心念念常有佛成正覺何以故諸佛如來不離此心成正覺如自心一切衆生心亦復如是據上等文故知欲成佛道必須修一心也而言一者論云心眞如者即是一法界大摠相法門體所謂心性不生不滅等此摠相心通於凡聖因果不分染淨故云一也○ 혼미한 길 위에 나아가 도

疏心也下二正顯示八一標舉 **心也者** 自性清淨心也泥言心者摠有四種梵語各異翻譯亦殊一紇利陀謂肉團心二緣慮名心謂八種識俱能緣慮自分境故三質多此云集起心即第八識集諸種子起現行故四乾栗馱謂堅實心今辨○ 疏沖虛下二直顯此也○ 心者如來藏

靈明 靈明○沖者深玄也華嚴序云汪洋沖融又云包納沖遂疏云沖深包博故老子云道沖而用之或不盈虛者非質故妙者染而不染故如蓮華雖在泥不爲所染故喻妙法也天台解妙有其十義天長疏解妙云非麤非妙方名至妙故下文云種種幻化生於如來圓覺妙心粹者精純也炳煥者俱是至明之相炳著煥爛也故華嚴疏序述十玄門中微細相容安立門云炳然齊現猶彼芥瓶意取歷歷分明不錯亂之狀矣論語云

沖虛妙粹 沖虛○妙粹○ **炳煥**

煥乎其有文章注云煥明也靈明者若但云明未揀日月之類故云靈也意云心之明者在無法不知而無分別無法不現而無差別幽靈神聖寂然洞然故曰靈明即此靈明而炳著○기쁘며 虛허ᄒᆞ며 煥환ᄒᆞ며 爛란ᄒᆞ며 ▣粹쉉ᄒᆞ는 ᄉᆞᄅᆞᆫ ᄉᆞᄅᆞᆫ 아ᄅᆞᆫ 靈령ᄒᆞ며 ᄒᆞ ᄇᆞᆯᄀᆞᆯ ᄒᆞ며 ▣나ᄃᆞ며 ᄇᆞᆺ나며 三竪通

無去無來 ᄒᆞ야

疏無去下

冥通三際 ᄒᆞ며○無去無來者謂此心不遷向前際去不從後際來亦不於現在住現在住者是諸有為法也故成唯識論云住表此法暫有用今不同彼以此真心無相無能所故不可見之於現在淨名云但以數故說有三世非謂菩提有去來今良由菩提亦無自性即同真心故非三世若就菩提當相則有始無終豈免初際冥通三際者由不屬三際故俱通也且如今日眼識不能見昨日色者以隨所見色皆落謝過去也今以真心不隨諸法遷向過去故於今時向真心中能現前際諸法影像歷歷亦能預現未來之法歷然然雖通於三際三際求之皆不可得與所知所現三際之境而不可分故言冥也華嚴經云法性徧在一切處一切衆生及國土三世悉在無有餘亦無形相而可得前三句通三際○감엄ᄉᆞ며 옴엄서 ᄉᆞᄉᆞᄋᆞᄋᆞᄋ

在則有所不在以無所不在故洞徹十方也洞徹二字通論義亦不殊若對冥通之言則二文文勢稍異謂洞然透徹無所不徧意顯決定舉體全徧非莽鹵隨宜而說然冥與洞各於句中互相影畧二皆備○什온矣不妨亦云冥通十方洞徹三際等

不生니 **豈四山之可害**며○不滅不生者真心不變故不生滅起信云所謂心性不生不滅然不生滅三性不同謂徧計無體可生可滅依他起性即生不生即滅不滅圓成實性自體本有不待新生盡未來際究竟常住永不斷滅今即當此自性不生不滅不同前二若三性相對各據自相說者即徧計之法妄生妄滅圓成真心不生不滅依他有二謂相同徧計似生似滅性同圓成不生不滅華嚴云一切法無生一切

法無滅等以依他無別自性故全同圓成也一切大乘經說一切諸法不生不滅寂滅常住等皆此義也豈四山之可害者涅槃經云二十九云如我昔告波斯匿王大王有親信人從四方來各作是言大王有四大山從四方來欲害人民王若聞者當設何計王言世尊設有此來無逃避處唯當專心持戒希施我即讚言善哉大王我說四山即是衆生生老病死生老病死常來切人云何大王不修施戒今云害者以經云欲害人民也若就經文法合云生老病死常來切人者今○滅器ㅌ아니ㅎ며生아니ㅎ며涅槃빤에ㅎ며ㅁ아니ㅎ며ㅁ아니ㅎ며ㅁ아니

法無性皆空即性也謂色即空等緣生諸法
即相也謂空即色等今以真心雖空無一物
而體非空故離性雖隨緣成一切色等諸法
而體非色故離相離性故名中道真性
也奚五色之能盲者奚何也五色能盲即道
經云五色令人目盲
耳聾不聞聽五音無聲則和之和氣去心
白黑五音者宮商角徵羽文中舉此五方正
色正音餘可例知今
能盲對色之識今真心離相不與色對彼豈
能盲若對色色即空復誰能盲道教中以虛
無寂寞爲道忘情絶智爲修故觀色聆音即
盲聾失道今真心離
聲色不能盲之昧
翳
○性성을여희여相상을여희어니엇데
明五용色식이能능히눈멀우리오眞諸
정法법性성업서다空콩호미곧性성이
니닐오되色식이업서곧空콩等등이라곧緣연호이

아난諸정法법이곧相상이니닐오되空콩
아곧色식等등이라이제真진實씷ㅅ몸ㅅ
몸비록空콩호야호物물도업ㅅ나體졍
空콩아닐ㅅ性성을여희오바록緣연을조
차一힐切쳉色식等등諸졍法법을일우나
體졍ㅣ色식아닐ㅅ相상을여희ㄴ相상여
희며性성여힐ㅅ일후미中등道쯩真진性
성아라五용色식은青청黃황赤적白빅黑
흑이니道쯩經경에닐오되五용色식이ㅅ
ㄹ ㄷ, 도눈멀에호ㄴ다호ㄴ나淫음을貪탐호
야色식을즐기면精정을傷
상호야明명을일ㄴ니라
疏處生下七不變處

生死流호얀驪珠ㅣ獨燿於滄海오踞涅槃岸
호얀桂輪이孤朗於碧天이니○四句兩對中
句以喩顯之無始生死漂溺有情故如流無
邊無底故如海涅槃是第一義天高超彼岸
皆上句以法標之下

之義故有岸天之言驪珠者驪龍頷下有明月寶珠光明洞徹雖在海中光明不滅不同燈燭入水則滅然不能徧照海中所有一切故云獨耀衆生雖處生死之中此心靈鑒不昧然且迷之不覺不覺故不能通達一切但照體獨立如珠獨耀故梁武帝製達磨大師碑文標意云滄海之內有驪龍珠白毫色天莫見人莫識我大師得之矣滄者是水深廣幽遠之貌如天蒼蒼是高遠之貌踞涅槃岸者涅槃此云圓寂一切諸法皆空心本無念融爲一真體性無別生死喧動故真心圓滿皆寂靜也踞者安然而居之謂也故時人皆呼憍慢貢高爲踞傲法華云遙見其父踞師子牀寶机承足慤云若非蓮藏化主孰踞其源桂輪者月也月中有桂故目之爲桂輪碧天者晴秋之夜無雲霧故唯見碧色其猶第一義天無諸惑業雲霧故喻碧天旣諸法皆空寂則心之本覺大智慧光明徧照法界離

諸分別故云孤朗然月在青天無所不照是以心圓寂時如天之月不同海珠又前云獨者約就迷時但能自照不能普照一切今云孤者約晴霄秋天唯月普照天下星等燈燭皆不可類如即體之智非對待始覺之智可比○生死海中無始生死

始生死海中無始生死

始生死海中無始生死

始

照ᄌᆞᆷ體ᄡᆡᆼᄒᆞ니오ᄉᆞᆫᄒᆞ시ᄀᆞᆫ
ᄋᆞᆷᄀᆞᆫᄒᆞ니라 涅ᄂᆞᆯᆷ槃ᄲᅡᆫᄉᆞᆫᄀᆞᆫᄉᆡᄀᆞᆯᆫᄀᆞᆯᆫᄒᆞ니라
ᄡᆡᆼ輪ᄅᆞᆫ이ᄑᆞᆫᄒᆞᆫᄂᆞᆯᆷ槃ᄲᅡᆫᄋᆞᆫ이第ᄡᆡᆼ一ᄒᆞᆯᆷ義ᄋᆡᆼ天ᄐᆞᆫ이ᄆᆞᆫᄌᆞᆫᄉᆡᄀᆞᆫ
ᄉᆡᆫᄂᆞᄑᆡᄀᆞᆫᄂᆞᆫᄠᅳᆮᄃᆞᆯᆫᄉᆡᄀᆞᆫᄉᆡᄆᆞᆫᄒᆞᆫᄂᆞᆯᆷ
ᄋᆞᆫᄂᆞᆯᆷᄒᆞᆫᄂᆞᆯᆷᄒᆞᆫᄂᆞᆯᆷᄒ

明起煩惱者略說煩惱麤相唯貪瞋癡謂既妄認四大五蘊爲自身心自然便貪一切榮樂之事欲以潤之便瞋一切違情之境恐損害之愚癡之情種種計校如上煩惱皆由迷眞執妄而起也二從煩惱起業者既貪瞋猛盛即造十惡等業或貪求生富樂之報造諸善業或厭下苦麤障欣上淨妙離修四禪八定不動業由迷第一義故善惡不動俱是有漏染業也三從業受報者然聲響形影之報毫不差由前惡業成則有地獄餓鬼畜生等種種苦報由前善業成則有四洲及六欲天等種種樂報由前不動業成則有色界四禪無色四空等種種差別之報所受苦樂之身是別業正報所居勝劣器界是共業依報然萬法展轉有所親依唯初不覺親依清淨心性即知萬法就最初始起必藉眞心故云資始不言資生如乾云資始坤云資生地親生故後明此心具河沙德用者如次疏說

○글에萬면法법이 뜨리비르수미여 疏萬法下二示心之覺相三一會妄顯真以標指

萬法이虛偽고 淨此云萬法且約染相會染皆空方顯淨相淨相與性即無礙也釋此一段之文作四重分別一具釋二配禪宗三配五教四辨所用之文字且初具釋所言虛偽者虛妄詐偽也謂但有其妄相而無實體曰虛隱其虛相詐現實狀曰偽故論云三界虛偽

緣會而生고 ○疏緣會而生者應先問云何得知萬法虛偽答必待衆緣相會方能生故云緣會而生緣有其四謂因緣等無間緣所緣緣增上緣且就因緣解者有其內外外者如穀子水土人時而芽得生泥團輪繩陶師而器得成內謂過去已熟之業爲因此世父母爲緣而此身得生未有一物不假內因外緣而得生者故中論云未曾有一法不從因緣生也此上猶對

小乘宗說若窮究緣生之義從本起末說者清淨心性為因根本無明為緣生三細業識為因境界為緣生六麤廣如起信論說

生法本無

生法本無疏

者既屬衆緣自無其體當知一切生法不待滅而本無故云生法本無故中論次前句云是故一切法無不是空者又云因緣所生法我說即是空又云諸法不自生亦不從他生不共不無因是故知無生肇論云一切諸法緣會而生緣會而生則未生無有緣離則滅如其真有有則無滅以此而推雖今現有有而性常自空乃至實相自無非推之使無故名本無又解生法即二執也生空法空故云本無

一切唯識

疏一切

唯識者問既一切本無何以現見諸法答唯是自己妄想心識所變故云一切唯識

知以意識想無為諸想有為無知故成唯識云彼我法相相我法相二相種法種種種

切世間也諸法也皆依內識體識所變見相分二而起假說識體隨緣名相也而非依離識實有我法又云變謂識立假

豐自證分也見分相分也然有漏識自緣體分生時皆緣似能緣及能緣自體相分相似分相似分能緣相所緣相分是無為而現似分

有此有二釋云名識為相體是分有二能緣相分是無為而現似分

故云二分亦有之二是依他起所言似者也二云編計二分實有之二分也

依自證起故依斯二分施設我法彼二離此俱無所依故二十唯識偈云唯識無境界以無塵妄見如人目有翳見毛月等事起信論云

一切諸法唯依妄念而有差別若離心念則無一切境界之相又云心生則種種法生心滅則種種法滅問若無外塵但妄見者應一切時一切處皆見有色或皆不見何故於有色時處眼則見色餘無色時處則不見邪答如人夢中所見境界諸物雖一切是無從想心起然亦不妨見有物處見無物處或先見後不見或初不見後見非處處皆見亦非一期長見心識變起諸法無而見有亦然又問若爾何故多人同處同時皆同於有處見有

無處見無有時見無邪苔如百千
餓鬼同依業力皆於無膿血猛火等處同時
而見豈清流河水實有猛火
等邪故知一切俱是心識

識如幻夢

○疏識如幻夢者先問曰既是心識變起諸
境諸境雖無心識還有何以前云生法本無
有爲心識豈非緣生法邪故此荅云識如幻
夢亦即是無然唯識論亦有此喻而所用之
義不同彼云我法分別熏習力故諸識生時
變似我法如幻夢者幻夢力故心似種種外
境相現緣此執爲實有外境彼釋意云幻夢
所見之物雖無其幻夢則不是無故有力變
起妄境今就無相及法性宗中所釋意即不
然二喻之中且約夢說謂夢想與夢境俱是
無法若言一有一無者則夢想與所見物應
異異則夢不是物物不是夢覺來夢滅其物
應在如莊周睡時夢見身爲胡蝶在華園中
蝶若非夢夢又非蝶則寤來夢滅胡蝶應在

以二物眞妄別故又蝶若非夢應是眞蝶夢
若非蝶以何爲相以此而推夢想與胡蝶雖
似能見所見之殊其實一體所言夢者但是
莊周睡時本有心識由昧畧故忽然妄現倒
想及胡蝶華園等相即呼此相及想而爲夢
也於此虛妄一夢之上似有內外身心之殊
內心即蝶想身即蝶相外即華園之相理實
而言想即蝶蝶即想蝶相既全空無蝶想豈
獨是有又所執蝶相分明似有豈便有邪又
若能執之想寤來雖無不妨未寤之時且是
有者所執蝶相悟來雖無未寤之時亦應是
有若爾即是心境俱有何言唯識今窮本末
以法合喻謂所言唯識者但是迷人本有
性淨眞心（合句莊周睡時但是一心故由不自了悟）
故（昧合於時）遂有三細六麤等現（蝶合於想）即呼此等
云唯識也（合於夢）於此一類妄識之上似有內外
之殊（內合蝶夢想外合蝶相想）其實境是識境識是境識（蝶合
即蝶想也）故傳大士云未有無心境曾無無境

心一一對喻昭然可明智者審思矣佛於權教說唯識理者良由未顯出性淨眞心且含在第八識中故以泯境存心至終教了義經中顯出眞心本覺方言心境俱空也成唯識亦云爲遣執心心所外實有境故說唯有識若執唯識眞實有者如執外境亦是法執若約病患之喻說者如人本有淨眼被風熱等翳(根本無明也物必眼之人必不無妄想也)即見空華種種相貌(六塵也)成唯識論釋意云空華雖無其見華之眼(如離八識淨心性之殊)翳是熱氣熱氣復云何能見故能見所見皆是虛妄但以翳故本淨之眼虛妄見華即知境識皆空但以迷故真淨心中虛妄見境但言識無不言不迷但言本眼外無別翳眼不言不翳餘諸風熱昏狂等患皆例此知亦於本心之外無別狂心等也

但是一心

○上所說既心境皆無誰是見

○疏但是一心者問據無之者且如眞理本無見有之者故見有爲妄今若亦無見無之者見無亦應是迷又雖夢想夢蝶不實且不妨有莊周身心今既心境俱無依何妄現根識塵境故答云但是一心謂夢想兼胡蝶二相但是莊周一人無別二心相妄識兼妄境二法亦但是眞實如來藏一心無別二法故根身器界及心所一切皆空無非一眞心也諸大乘經論皆說萬法唯心是此義矣然唯心之義淺深有異若法相宗言唯心者但是有爲心識緣慮積集了別辨境爲相即是此上來云一切唯識是也若法性宗云唯心者直是眞如之心無爲無相離諸緣慮分別緣慮分別亦唯一心故起信論云心眞如者即是一法界大總相法門體云云乃至離言說相離名字相離心緣相畢竟平等無有變異不可破壞唯是一心故名眞如此中云緣慮分別等唯一眞心例如彼法相宗中說諸外境唯八識也問若爾則

諸佛菩薩豈但見無相真心更無有境界等邪荅理實如此故經云離一切相即名諸佛等但得妄想根識塵境之執都盡則成瀜通自在身智國土染淨無礙如下覺相中說

心○寂而知

○疏心寂而知既非色聲香味等相復無分別緣慮愛惡等相未審何者是此真心真心自體有何勝能云何表顯的有真心凡欲釋諸法門皆須釋名出體不可但言一心不出體相故此荅云寂而能知也寂者是實體堅固常定不喧動不變異之義經云一切空寂法是法寂不空若無真心之體說何物寂何物不動不變邪知者謂體自知覺昭昭不昧棄之不得取之不得是當體表顯義非分別比量義上言不喧不變動等者只說此知寂而不變等也寂是知寂知是寂知寂是知之自性體知是寂之自性用故清涼大師荅順宗皇帝心要云靈知不昧性相寂然又云以知寂不二之一心契空有雙融之中道此經云圓覺普照知也寂滅無二寂也瓔珞經說等覺照寂妙覺寂照金光明經攝大乘論說佛果無別色聲功德唯如如智也獨存荷澤云即體之用自知即知而體自寂名說雖差體用一致誠謂用而常寂寂而常用知之一字衆妙之門恒沙佛法因此成立華嚴問荅明品說佛境界智佛境界知二相各別偈荅知云非識所能識亦非心境界其性本清淨開示諸羣生彼疏釋云知即心體通於染淨然此真心有二種用一自性用二隨緣用今言知者即自性用不待對緣本自知故隨緣用者即一切分別種種心識差別智慧及一切所作所為或辨一切事業以心待對緣方能發現及能成辦故如大摩尼寶能現一切色像亦能隨意出生一切所要之物名隨緣應用也若無意願即不出生又於不對緣之時亦不能現故其珠之光明即表裏透徹常

自照耀對物不對物堅實明淨常無增減其中影像不妨或有或無種種變易堅淨喻心之寂體也明照喻心之智用也堅淨者即明而堅淨也青黃種種差別者即對境能青黃等也

目之圓覺。經所詮法也若於寂知之境但見身心外塵生死變動之相及頑礙念念之相即不名覺故論云一切衆生不名為覺等設於身心空有等中覺有能知之心不屬諸物常自能知雖似覺相亦不名圓以空有等法不即覺故覺心之外仍有空有等故故非圓也今此良由從萬法展轉推逐悉無一法體存但是一真之心豎窮橫徧心外無別一法盡是覺心故名圓也故下文云證得諸幻滅影像故爾時便得無方清淨無邊虛空覺所顯發覺圓明故顯心清淨乃至一切覺故首楞嚴云若有一人發真歸源十方虛空一時消殞了云寂照含虛空却來觀世間猶如夢中事是以觀推萬法虛幻如夢本空顯出心體即名圓覺矣上來具釋竟二配禪宗者從萬法虛偽乃至識如幻夢五句是空義兼此寂知亟是荷澤所傳空寂是心知是用之宗旨也三配五教者然此一段於五教中具足其四以此經但分司華嚴故不配圓教謂初二句小乘教次二句大乘法相教次識如幻夢一句意顯心境全空即大乘破相教此二合之為始教也後三句頓教兼次上三句與此相合以為一義即是終教又此後三句中初句含終次句亟顯後句含圓四顯所用文字者然此段文句皆有所憑唯目之圓覺一句是自結成矣謂論云三界虛偽唯是一心今以躡前萬法之言故但改三界字為萬法字耳緣會而生及本無之言即是肇論宗本義中標云本無實相法性性空緣會一義耳釋云一切諸法緣會而生緣會而生則未生無有云云所弘乃至有而性常自空故謂之

性空性空故故曰實相實相自無非推之使
無故曰本無又生法法二言法相宗經論章疏
之常談也一切唯識識如幻夢者成唯識論
文但是一心者起信論文則改唯字爲但字
矣○萬法皆虛妄偽(허위)하야 오직 (만)하는 相(상)이 있고 實(실)하는 體(체)가 없으
니 오직 虛(허)하는 相(상)을 숨기고 實(실)
(실)하는 體(체)를 오직 偽(위)라 하
緣(연)이 모다 나는 法(법)이 本(본)來(래)
(연)ㅅ나 一(일)切(체)오 직 識(식)이 니 識(식)은 幻
(환)과 夢(몽)과 같고 오직 이 한 마음이니
ㅅ든 꾀와 고하야 이 일후를 圓(원)覺(각)이
라 하니라

疏 彌滿下二 即體之相 以圓收二 初離過 彌滿清淨하야

中不容他 ㄷ시 ○上推心境俱空顯出圓明
知覺旣無一塵一念之相即廓周
法界彌然罩(조)滿無有邊涯是一味之覺無
不清淨故下文云爾時便得無方清淨乃至

一身多身一世界多世界盡於虛空圓裹三
世一切清淨於真覺境中無別一塵有體之
法何以故色乖空故如火乖水水不容火故
云中不容他此即法界觀中真空絶相觀也
於中正當會色歸空觀矣彼亦云良由會色
歸空空中必無色又此中亦無於空何以故
覺非空故故佛頂經云若有一人發真歸源
十方虛空一時消殞是知空色俱絶故云不
容他也故泯絶無寄觀中又云不可言即色
不即色即空不即空等又云生心動念即乖
法體失正念故皆是不容他之義也亦應云
以容他物即乖法體又亦是理事無礙觀中
以理奪事門彼文云事旣攬理遂令事相皆
盡唯一真理平等顯現以離真理外無片事
可得故據此即上推萬法虛偽乃至寂知即
當事能顯理門也然中不容他之言此是佛
頂經文勢彼云云○ㄷㅣ ㅎㅏ야 淸淨(청정)하야
何是中更容他物 ㅇㅣ ㄷㅏ ㅎㅏ야 ㅇㅡㄴㅌㅏ ㄷㅏ른 ㄱㅏ슬ㅡㄴ

리디이 니흘시

疏故德下二具德二初揔標具德

故德用無邊皆同一性

○謂根塵識等一切諸法若是實有即乖覺性故華嚴云未曾有一法得入於法性今以一切清淨不存一微塵之自體故無邊清淨覺中所有一切諸法莫不一一盡是性之德相性之業用如金之器器皆金如鏡之像像皆鏡故云皆同一性此是會事歸理也言德用者德即相大用即用大皆同一性即體大然此德用盡收色心境智時處教義行位一切諸法不同論中翻對妄染本空但顯自性之德言無邊者有二義一事法數多過於河沙無有限量二謂此諸法等無自體故無有分限

○德득用용周두遍변性성

名無邊矣

疏性起下二釋

性起為相得性融身心廓爾

○理事交徹事不異理理不異事互相融故謂覺性離前執計之過故能全體起為一切諸法如金出鑛方為諸器如鏡垢盡方顯萬像性外無別一法為能所起起唯性起故晉譯華嚴經有性起品華嚴關鍵中有性起門縱說諸緣互相資發就此門中緣起亦成性起然法相宗所說真如一向凝然不變其緣起法自是有為色心若此法性宗所說真性洞鑒靈明全體即用故舉體常為萬法舉體常自寂然寂然是全萬法之寂然故不同虛空斷空頑凝而已萬法是全寂然之萬法故不同徧計倒見定相之物擁隔阻礙境智歷然者一切諸法雖其數無量不出色心收盡但倒執之時色等諸法是五根六塵心心所法是情識緣慮等念今無能所之執故成無邊妙境無量智慧此二句即當依理成事門及理如事現門相得

相得性融身心廓爾

性起為相境智歷然

性融身心廓爾者即事如理徧門謂諸事相既全性起起不異性故隨所依性廓周法界故下文云身心寂滅平等本際圓滿十方不二隨順又云覺性徧滿圓無際故當知六根徧滿法界乃至六塵四大○性성이니라相상이ᄃᆞ외요ᄃᆡ陁羅尼門等徧滿法界라境경과智지왜ᄡᆞᆫ득ᄒᆞ며相상이性성의ᄂᆞ아ᄆᆞᆯ得득ᄒᆞᆫ다라몸과ᄆᆞᅀᆞ미한ᄒᆞ니

疏方之下二喻

方之海印이며**越彼太虛**ᄒᆞ야○賢首品十種三昧門中第一圓明海印三昧門也謂大香海澄渟萬象歷然齊現猶如印文影像如諸相海水如圓覺故文云或現童男童女形天龍及與阿脩羅乃至摩睺羅伽等隨其所樂皆令見衆生形相各不同行業音聲亦無量如是一切皆能現海印三昧威神力又大集經云闍浮提一切衆生身及與外色大海中皆有印象故名海印菩提亦爾是名菩提海

印三昧清涼以十義釋之具在大鈔越彼太虛者有二義故越一若以目覩此虛空此空尚以色爲邊際故二若以智觀此空此空是識所變但是覺性之中一分義故又眞覺融色故彌徧十方此太虛不能融色故不徧彌徧故佛頂云空生大覺中如海一漚發揭云者楞歎虛空之小圓覺嗟法性之○海印寬比之常談海形牛跡故云越也

에가ᄌᆞᆯ비며海印은華嚴十種三昧門ᄆᆞᆫ中ᄃᆞᆼ엣第一圓원明海印ᄒᆞᆫ三昧門ᄆᆞᆫ이니닐오ᄃᆡ큰바ᄅᆞ리ᄆᆞᆯ가萬만像상이ᄇᆞᆫᄃᆞ가ᄃᆞ나ᄃᆞ미印ᄒᆞᆫ ᄉᆞ글ᄀᆞᆫ ᄒᆞ니ᄀᆞ리멧像상은한相상ᄀᆞᆫ고바ᄅᆞᆺ므ᄅᆞᆫ圓원覺각ᄀᆞᆫ ᄒᆞ니라ᄆᆞᆫ더큰虛허空콩에너머

疏恢恢下三結歎覺體超名相

恢恢焉ᄒᆞ며**晃晃**ᄒᆞ야**迥出思議之表也**ᄒᆞ니라○恢恢者廣大曠遠之狀老子云

天網恢恢疎而不漏(天所疎遠伺察人善惡無所失也)莊子云恢恢焉猶有餘地晃晃者曰光熾盛照曜輝赫之貌也恢恢體也寂也圓也晃晃用也知也覺也迴出思議之表者不可思議也何名不思議心言不及故謂理圓言偏言生理喪法無相想思則亂生故金剛三昧云千思萬慮不益道理徒為動亂失本心王故知心王言語道斷(名是言語道路心行處滅是相行處)故古德云口欲辯而辭喪心將緣而慮息則迴出於言象之表矣云心言不及者謂法無名故言不及法無相故心不及於所緣境非定名定相故於心口不可思議何法不思議即圓覺性相無礙也何故不思議即染而淨(染即聖通局之類非性相故)一何用不思議(假名數)(繇恐迷難入之人何今泯絕顯法超情令亡言故謂法體實離思議之境若令住思議永不能入今說離言超情衆生即忘言絕慮不住言象而求之自然入也故六七祖師皆有善惡不思量等言矣○恢(恢)恢(恢)恢恢(恢)疎(疎)而(而)不(不)漏(漏)晃(晃)晃(晃)猶(猶)有(有)餘(餘)地(地)晃(晃)晃(晃)者(者)曰(曰)光(光)熾(熾)盛(盛照)照(照)曜(曜)輝(輝)赫(赫)之(之)貌(貌)也(也)恢(恢)恢(恢)體(體)也(也)寂(寂)也(也)圓(圓)也(也)晃(晃)晃(晃)用(用)也(也)知(知)也(也)覺(覺)也(也)迴(迴)出(出)思(思)議(議)之(之)表(表)者(者)不(不)可(可)思(思)議(議)心(心)言(言)不(不)及(及)故(故)謂(謂)理(理)圓(圓)言(言)偏(偏)言(言)生(生)理(理)喪(喪)法(法)無(無)相(相)想(想)思(思)則(則)亂(亂)生(生)故(故)金(金)剛(剛)三(三)昧(昧)云(云)千(千)思(思)萬(萬)慮(慮)不(不)益(益)道(道)理(理)徒(徒)為(為)動(動)亂(亂)失(失)本(本)心(心)王(王)故(故)知(知)心(心)王(王)言(言)語(語)道(道)斷(斷)(名是言語道路心行處滅是相行處)故(故)古(古)德(德)云(云)口(口)欲(欲)辯(辯)而(而)辭(辭)喪(喪)心(心)將(將)緣(緣)而(而)慮(慮)息(息)則(則)迴(迴)出(出)於(於)言(言)象(象)之(之)表(表)矣(矣)云(云)心(心)言(言)不(不)及(及)者(者)謂(謂)法(法)無(無)名(名)故(故)言(言)不(不)及(及)法(法)無(無)相(相)故(故)心(心)不(不)及(及)於(於)所(所)緣(緣)境(境)非(非)定(定)名(名)定(定)相(相)故(故)於(於)心(心)口(口)不(不)可(可)思(思)議(議)何(何)法(法)不(不)思(思)議(議)即(即)圓(圓)覺(覺)性(性)相(相)無(無)礙(礙)也(也)何(何)故(故)不(不)思(思)議(議)即(即)染(染)而(而)淨(淨)(染即聖通局之類非性相故)一(一)何(何)用(用)不(不)思(思)議(議)(假名數)(繇恐迷難入之人何今泯絕顯法超情令亡言故謂法體實離思議之境若令住思議永不能入今說(說)離(離)言(言)超(超)情(情)衆(衆)生(生)即(即)忘(忘)言(言)絕(絕)慮(慮)不(不)住(住)言(言)象(象)而(而)求(求)之(之)自(自)然(然)入(入)也(也)故(故)六(六)七(七)祖(祖)師(師)皆(皆)有(有)善(善)惡(惡)不(不)思(思)量(量)等(等)言(言)矣(矣)○恢(恢)恢(恢)恢恢(恢)疎(疎)而(而)不(不)漏(漏)晃(晃)晃(晃)猶(猶)有(有)餘(餘)地(地)晃(晃)晃(晃)者(者)曰(曰)光(光)熾(熾)盛(盛

嚴出現品云佛子無一衆生而不具有如來智慧但以妄想顛倒執著而不證得懸(懸)(懸)(懸)(懸)若離妄想一切智自然智無礙智則得現前便舉一塵含大千經卷之喻後合云如來智慧亦復如是具足在於衆生身中但諸凡愚不知不覺不得利益爾時如來普觀一切衆生而作是言奇哉奇哉(哉也)云此諸衆生云何具有如來智慧迷惑不見我當教以聖道令其永離妄想自於身中得見如來廣大智慧與佛無異

三思大事

○疏三思大事者三思之言有其二意一者十地經是佛初成道第二七日說故論判云時勝謂成道第二七日說故初七思惟因行之能說緣之激化行故所欲開說(若論曰次初七思惟因行之能說緣之激化行故所欲開說)(妙法故以思惟行物釋曰十地論但云思惟今云三思者外有文而內有義有義者夫思惟忖度審諦必番覆再三以爲後軌如三請三禮之類也外有文者即論語云季文子三思而後行子聞之曰再斯可矣(行注斟酌行)(斟酌行)(斟酌行)(

漢편ᄒᆞ시다ᄒᆞ니라 ■큰이ᄅᆞᆯ洲번思ᄉᆞᆼ量량ᄒᆞ샤 ■法법華황經경에ᄂᆡ라ᄀᆞᆮᆞ샤ᄃᆡ 三삼七칠日실中듕에이ᄅᆞᆫ큰ᄒᆞᆫ이ᄅᆞᆯ思ᄉᆞᆼ量량ᄒᆞ고 라ᄒᆞ시ᄂᆡ어제늘온洲번思ᄉᆞᆼ量량ᄒᆞ샤ᄃᆡ 洲ᄒᆞᆫ곧三삼七칠日실이오思ᄉᆞᆼ量량ᄒᆞ샤ᄆᆡ 온곧이곧ᄒᆞᆫ일思ᄉᆞᆼ量량ᄒᆞ샤ᄆᆡ 疏ᄉᆞᆫ 既기 全전下하二이叙서佛불化화儀의三삼 明명利리濟제心심等등

既기全전十십力력ᄒᆞ샤ᄆᆡ ○既기者자已이也야是시躡전前전證증此차之지言언也야謂위前전云운證증此차又우云운三삼思사等등已이是시摧최魔마軍군全전十십力력訖흘今금爲위欲욕顯현演연教교度도人인儀의式식故고却각滅멸成성道도之지相상故고云운摧최魔마等등也야全전者자簡간菩보薩살十십力력智지度도論론說설菩보薩살亦역有유十십力력故고今금云운全전十십力력即즉佛불智지也야諸제論론皆개云운十십力력華화嚴엄梵범行행品품文문乃내名명智지也야然연如여來래唯유一일諸제法법實실相상智지力력此차力력有유十십種종用용故고說설爲위十십名명力력者자能능摧최怨원敵적故고不불可가屈굴伏복故고其기十십種종別별義의在재下하佛불荅답普보眼안等등者자本본行행經경說설悉실

達달太태子자向향菩보提제樹수下하心심念념欲욕度도彼피岸안放방光광照조三삼千천界계波파旬순自자然연聞문偈게聲성說설太태子자欲욕證증大대明명空공汝여境경界계魔마領령無무量량徒도衆중詣예菩보提제樹수變변現현種종種종可가怖포畏외相상太태子자唯유思사念념法법心심不불擾요亂란云운云운乃내至지魔마退퇴諸제天천讚찬喜희即즉於어其기夜야成성阿아耨뇩菩보提제樹수下하也야今금却각以이十십力력在재降항魔마言언樹수下하者자菩보提제樹수下하也야今금却각以이十십力력在재降항魔마前전者자但단取취文문便변非비謂위成성道도在재降항魔마之지前전

爰원起기忍인ᄒᆞ샤ᄆᆡ ○疏소爰원是시發발語어之지辭사爾이雅아云운爰원曰왈也야起기謂위發발起기四사心심者자謂위慈자悲비喜희捨사四사無무量량心심也야菩보薩살從종初초乃내至지成성道도常상運운此차四사種종心심教교化화衆중生생謂위慈자能능與여樂락悲비能능拔발苦고喜희謂위慶경彼피得득樂락捨사謂위怨원親친平평等등此차四사種종心심各각具구三삼緣연(二者生緣 三者法緣 四緣差別 五緣一切衆生相 上二者無緣也) 皆개廣광大대無무量량故고云운四사無무量량心심

欲욕示시宅택中중寶보藏장ᄒᆞ샤ᄆᆡ ○疏소寶보藏장者자涅열槃반第제七칠因인說설常상樂락我아淨정迦가葉섭菩보薩살問문云운世세尊존二이十십五오有유我아不불也야佛불言언善선男남子자我아者자即즉是시如여來래藏장義의一일切체衆중生생悉실有유佛불

性即是我義如是我義從本已來常爲無量
煩惱所覆是故衆生不能得見善男子如貧
女人舍內多有真金之藏家人大小無有知
者時有異人善知方便語貧女人曰云云乃
至是人即於其家掘得真金之藏女人見已
心生歡喜生奇特想宗仰是人善男子衆生
佛性亦復如是一切衆生不能得見如彼寶
藏貧人不知善男子我今普示一切衆生所
有佛性爲諸煩惱之所覆蔽如彼貧人有真
金藏不能得見如來今日普示一切衆生諸
覺寶藏所謂佛性而諸衆生見是事已心生
歡喜歸仰如來第十八又云善男子大涅槃
經悉是一切諸佛祕藏何以故諸佛雖有十
一部經不說佛性不說如來常樂我淨諸佛
世尊不畢竟涅槃是故此經名爲如來祕密
之藏十一部經所不說故故名爲藏如人七
寶不出外用名之爲藏又如來藏經有九種
喻喻如來智慧隱在衆生身名如來藏今疏

引者第五喻也經云譬如貧家有珍寶藏寶
不能言我在於此既不自知又無語者不能
開發此珍寶藏一切衆生亦復如是如來知
見大法寶藏在其身內不聞不知耽著五欲
輪轉生死受苦無量是故諸佛出興於世爲
開身內如來法藏九喻之中義意幷餘八喻
文義並如下文殊章廣釋然彼經未揔校量
功德云供養過去恒沙佛乃至造恒沙七寶
臺高十由旬日日如是乃至五十恒沙七寶
臺供養恒沙如來不如有人云云百分不及
其一云云乃至譬喻所不能及 疏缺 身 艸 佛 難 信

○ㅎ마十씹力ㄹ
을을오사能능
히樹쓩下쌍八魔망軍군을꺼그시며 本
是行형經경에니르샤되悉싫達딻太뗑子
ㅈㅣ善뽕提뗑樹쓩下쌍를向향ㅎ샤ㅁㅅ
매念념ㅎ샤되魔망王왕波방旬쓘을濟졩
度뚱코져ㅎ샤放방光광ㅎ샤三삼千쳔界
갱를바취여시늘魔망王왕이無뭉量량ㅎ

衆중을領령ᄒᆞ야菩뽕提뗑樹쓍에가種종種죵앳저픈相샹을變변ᄒᆞ야나토거늘太탱子중ㅣ오직法법을念념ᄒᆞ시고ᄆᆞᅀᆞ몰擾숑亂란아니ᄒᆞ시ㄴ魔망ㅣ믈러나거늘그날바ᄆᆡ正정覺각을일우시ㄴ라四숭心심은慈쫑와悲빙와喜힁와捨샹앗ᄂᆡ無뭉量량心심이라

집안햇보빗藏짱을빗오져ᄒᆞ신마ᄅᆞᆫ涅녈槃뻔애니ᄅᆞ샤ᄃᆡ難난ᄒᆞᆫ女녕人신이집안해眞진金금藏짱이해이ᄊᆞᆫᄃᆡ지븻사ᄅᆞ미알리업거늘그ᄲᅵ奇끵異잉ᄒᆞᆫ사ᄅᆞ미方방便뻔을이대아라眞진金금藏짱을ᄯᅡ어드니善쎤男남子중아衆중生싱아佛뿛性셩도ᄯᅩ이곤ᄒᆞ야一힐切쳉衆중生싱이能능히보디ᄆᆞᆯ호미뎌寶뽕藏짱을難난ᄒᆞᆫ難난ᄒᆞᆫ사ᄅᆞ미아디ᄆᆞᆯ홈곤ᄒᆞ니善쎤男남子중아내이제一힐切쳉衆중生싱이ᄃᆞᆺ는佛뿛性셩이한煩뻔惱뇽이두퓌ᄊᆞᆫ미眞진金금藏짱을보ᄃᆞᆫ홈곤ᄒᆞᆫ거슬너ᄇᆞ리ᄇᆞᆫ노라ᄒᆞ시ㄴ라

疏소然연迷下二明명隨쑹器끵頓돈漸쩜然연ㅣ나이迷몡頭뚜捨父ᄒᆞ야○迷二喻유皆개喻유衆중生생迷몡失실本본性셩謂위爲위本본無무故고輪륜迴뒝生생死쑹此ᄎᆡ是시佛뿛所소化화之지機끵也야於어中중復복有유二이類뤵故고舉거兩량喻유言언迷몡頭뚜者자佛뿛頂뎡經경第뗑四사云운富뿡樓루那나言언敢감問문如여來래一힐切쳉衆중生생何하因인有유妄망自쩡薮소妙묗明명受쑤此ᄎᆡ淪륜溺녁佛뿛告고富뿡樓루那나汝여雖슈除뗑疑의餘여惑혹未미盡진吾오以이世셰間간現현前쩐諸졍事쓩復복問문汝여汝여豈기不불聞문室실羅라滅멿中중演연若약達달多다忽홀於어晨씬朝죠以이鏡경照조面면愛애鏡경中중頭뚜眉미目목可가見견瞋진責쩩已이頭뚜不불見견面면目목以이爲위魑치魅메無무狀쌍狂광走주於어意의云운何하此ᄎᆡ人신何하因인無무故고狂광走주富뿡樓루那나言언是시人신心심狂광更갱無무他타故고佛뿛言언妙묗覺각明명圓원本본圓원明명妙묗旣기稱칭爲위妄망云운何하有유因인若약有유所소因인云운何하名명妄망自쩡諸졍妄망想썅展젼轉쩐相샹因인從종迷몡積적迷몡以이歷력塵띤劫겁雖슈佛뿛發발明명猶유不불能능返반如여是시迷몡因인迷몡自쩡有유識식迷몡無무因인妄망無무所소依의尚샹無무有유生생欲욕何하爲위滅멿得득

菩提者如寤時人說夢中事心縱精明欲何
因緣取夢中物況復無因太無所有如彼城
中演若達多豈有因緣自悔頭走忽然狂歇
頭非外得縱未歇狂亦何遺失富樓那妄性
如是因何爲在汝但不隨分別世間業果衆
生二種相續三緣斷故三因不生則汝心中
演若達多狂性自歇歇即菩提勝淨明心本
周法界不從人得何藉劬勞肯綮修證言捨
父者法華信解品須菩提等四人聞方便品
及譬喻品未曾有法以喻領解（略取意撮大
意云如人年小捨父逃逝久住他國至五十
歲年既長大加復窮困馳騁四方以求衣食
漸漸遊行遇向本國其父先來求子不得中
止一城其家大富財寶無量窮子傭賃展轉
遇到父舍住立門側遥見其父踞師子牀寶
机承足諸婆羅門刹利居士恭敬圍遶以真
珠瓔珞價直千萬莊嚴其身吏民僮僕手執
白拂侍衛左右窮子恐怖悔來至此竊作是
念疑是國王大臣恐逼驅使疾走而去長者
遥識心喜念言財有所付遣人往捉窮子稱
怨自念無罪而被囚執父知彼下劣方便遣
憔悴人徐語言此有作處倍與汝直雇汝除
糞父著麤弊衣執除糞器語言勤作勿復餘
去我如汝父如所生子呼之爲兒窮子雖喜
猶謂作人故二十年中常令除糞後相體信
出入無難然其所止猶在本處父疾臨終命
子集會親屬王臣付與財寶後法合云世尊
大富長者即是如來我等皆是佛子云云我
等於生死中受諸熱惱迷惑無知樂著小法
今日世尊令我思惟蠲除諸法戲論之糞得
至涅槃一日之價心喜爲足便謂弘多佛便
縱捨不爲分別汝等當有如來知見寶藏之
分世尊以方便說如來智慧我等從佛得小
涅槃以爲大得於此大乘無有志求又因知
來智慧爲諸菩薩開演大乘而自於此無有
志願所以者何佛知我等心樂小法以方便

力隨我等說而我等不知真是佛子今我方知世尊於佛智慧無所悋惜若我樂大佛則為我說大乘法於此經中唯說一乘是故我等說本無心有所希求今法王大寶忽然而至

悟有易難 이라시니 如狂心歇歇卽菩提此爲易也捨父者二十年中除糞猶在本處不肯早信是長者子故爲難也

故로 仙苑覺場 에 悟之殊故佛說頓教漸教之異也仙苑鹿野苑也是古昔仙人所住處故普曜經云佛成道訖第六七日於波羅奈國仙人鹿苑度阿若憍陳如佛唱善來苾芻便發戒品付法藏經云佛住波羅奈鹿野苑中古仙住處爲五比丘初轉法輪覺場者菩提場也梵語菩提唐言覺今取唐言故云覺場場者證覺之處卽天地之中摩竭提國王舍城西二百里菩提樹下金剛座上若約法則萬行皆是道場理智相會之處故爲表所說如證故不移其處而說頓教最初卽華嚴也經云如是我聞一時佛在摩竭提國阿蘭若法菩提場中始成正覺乃至有十佛世界微塵數菩薩摩訶薩所共圍遶

教興頓漸 이라 者對上易悟之機卽菩提場初成正覺不移其處便興頓教頓教之首便是華嚴自後乃至減度中間每遇上根卽頓說眞性時處不同皆名頓教有數十部又對上難悟之機故三七日後往波羅奈仙人住處而興漸教漸教之首卽是五比丘所聞四諦法輪中間三時五時漸次而說處所各別終至法華涅槃皆名漸教三乘權實部類尤多今但指二處者各論根源最初起者

○ 그러나 머리를 모르며 아비를 보며 머리를 몰라 아비 보는 다 衆生이 本性 성을 몰라 일코 本性 來 링업스니라 흐시니 生성 死 싱에 그우는 뉴물 가즐 바

시니라 머리몰로문 樓룸 嚴엄에부톄 富붐
那낭 두려니르사되 演연 若샹 達딻 多
당ㅣ 문득새바기거우로
우룻가온딧머리의눈섭과누니어루보물
듯고내머리의ᄂᆞᆺ과눈보디몯ᄒᆞ몯嗔친心
심ᄒᆞ야責짝ᄒᆞ야귓거시라ᄒᆞ야곧업시미
쳐드르니ᄠᅳ뎬엇더뇨이사르미어딜因힌
ᄒᆞ야緣원故공업시마쳐드근뇨富붐樓룸
那낭ㅣ슬오되이사르미ᄆᆞᅀᆞ미춘디라
ᄂᆞ외야다른緣원故공ㅣ업ᄉᆞ니이다ᄒᆞ니라
라아비ᄇᆞ료문法법華황에닐오되사르미
져머셔아비ᄇᆞ리고逃돌ᄃᆞ망ᄒᆞ야가다른
나ᄌᆞ라해오래사로되쉰히에니르러나히
마ᄌᆞ라더욱窮꿍困콘ᄒᆞ야四숑方방애드
녀옷밥求꿍ᄒᆞ다가漸쩜漸쩜ᄃᆞᆫ녀믿나라
해오니그아바몬져아ᄃᆞᆯ求꿍ᄒᆞ다가몯어라
더ᄒᆞᆫ城썽에사로되그지비ᄀᆞ장가ᄉᆞ멈ᄂᆞ
ᄎᆞ랑보비그지업더니貧삔窮꿍ᄒᆞ야ᄃᆞ리

올ᄆᆞ머올마아비지비마
ᄉᆞ거ᄃᆞ라ᄀᆞ서ᄆᆞ리셔보되제아비師숑子쫑
床썅애걸안지寶봉杌굉발바댓거든한婆
빵羅랑門몬과刹삻利링와居겅士쌍왜恭
공敬경圍윙遶숑ᄒᆞ얫거늘窮꿍子쫑ㅣ두
리어그ᄉᆞ기이念념ᄒᆞ되이王황이며大땡
臣씬이라ᄃᆞ다와ᄃᆞ다ᄇᆞ리가저허ᄲᆞ리ᄃᆞ거늘
長쨩者이쨩ㅣ머와ᄃᆞ다ᄇᆞ셔알ᄋᆞ오ᄆᆞᄉᆞ매갓ᄀᆞ사ᄅᆞ
보내야가자ᄇᆞ라ᄒᆞ니窮꿍子쫑ㅣ怨원讐
ᄲᆞ내어일ᄀᆞ자ᄇᆞ라재라念념ᄒᆞ되罪쭹업시자표
몰닙노라ᄒᆞ야ᄂᆞᆯ아오ᄅᆞ몰알
오方방노라便뼌으로양자비셔
ᄌᆞ누ᄌᆞ기닐오되이에일홀씨히잇ㄴ
네갑솔倍뻥히주고널로똥치유리라코아니
비麋쫑ᄒᆞ온헌옷닙고똥츨그릇잡고닐오되
ᄇᆞᄌᆞ러니ᄒᆞ고다른되가디ᄠᆞᆯ라내네아비
곤ᄒᆞ야나ᄒᆞᆫ아ᄃᆞᆯ곤ᄒᆞ니라비록ᄀᆞᄉᆞ나되아
ᄃᆞ리라ᄒᆞ야ᄂᆞᆫ窮꿍子쫑ㅣ비록ᄀᆞᄉᆞ나되손

지일홀사ᄅᆞ미로라너끌ᄉᆡ二ᄉᆡᆼ十ᄡᆞᆷ年년
을상녜ᄯᆞᆼᄎᆡ이ᄃᆞ니나後薨에서ᄅᆞ미ᄃᆞ드나
ᄃᆞ로ᄃᆞᆯ어려이아니ᄒᆞ나그잇ᄂᆞᆫ사히ᄉᆞᆫ지
本본來ᄅᆡᆼᄉᆞ고대잇ᄃᆞ니ᄒᆞ나아비病ᄲᆡᆼᄒᆞ야주
글제아ᄃᆞᄅᆞᆯ命명ᄒᆞ며아ᄉᆞᆷ과國ᄀᆞᆨ王황과
大ᄯᆡᆫ臣ᄲᆡᆫ을ᄆᆡ화쳔량과보바ᄅᆞᆯ맛ᄃᆡ다ᄒᆞ과
ᄂᆡ라ᄆᆞᆫ아로ᄆᆡ쉬우며어려우미이실ᄉᆡ仙
ᄲᆡᆫ苑원과覺각場땅애ᄆᆞᆫ仙션苑원은鹿록
野양苑원이ᄂᆡ녯仙션人신사ᄃᆞᆫ사히ᄂᆡ부
ᄌᆡᆫ成ᄲᆡᆼ道ᄯᆞᆼᄒᆞ샤이에와처ᄉᆞᆷ法법輪륜을
옮기ᄉᆡ니라覺각場땅은菩뽕提뗑場땅이
니부터成ᄲᆡᆼ道ᄯᆞᆼᄒᆞ신사히라ᄆᆞᆫ敎교ᄀᆞᆯ頓
ᄃᆞᆫ과漸쩐과ᄅᆞᆯ
니르ᄒᆞ샤ᄃᆞ

之異 ᄒᆞ샤○五時異者佛初成道三七日思惟已便往仙苑及諸住處十二年之間說諸有為法緣生無我然猶未說法無我二理名初時有教即阿含等一藏小乘經是第

時中依偏計所執說諸法空然於依他圓成猶未說有名為空教即諸部般若經是第三時中說法相大乘境空心有名中道教即深密等經是第四時中開示一切衆生如來知見會三乘為一乘會權入實名同歸教即法華經是第五時中臨入涅槃說一切衆生乃至闡提皆有佛性凡是有心定當作佛常樂我淨名常住教即大般涅槃經是從始至終成就一類之機故揔名為漸教

空有 ᄅᆞᆯ ᄉᆡᆫ○疏空也謂約我法心境真俗或先後或同時遞互相對彰顯諸法空有之義也且初心境有兩對空有謂第一時教心境俱空（後上遞一號）第三時教境空心有（遞互時）約真俗者自有四句謂第二時教俗有真空四五時教俗空（破世間執倒真有幽冥世常樂牧經云空樂牧）第三時教四重二諦前後相望互為空有若二三時教相望第二時真俗俱空

迭彰 ᄒᆞ시고○疏有迭彰者迭遞（涅槃不空者也）

第三時眞俗俱有約我法者亦有四句謂第一時教初人天乘我法俱有中間大乘我法俱空次初小乘我空法有最後涅槃我有法空(彼經破小乘我空故無眞俗故上來揔有十對空有皆約法約時遞互隱顯故云迭彰相對無心成空)皆約不約諸教說空說有判深淺者如說諸外境取第一第二時教相望一有二空空深有淺若說依他緣起心心所法自有兩對謂二三時教相望二空三有空淺有深三與四五相望初有後空空深有淺若說我者初後相望初空後有空淺有深餘之空有深淺皆例此知由此諸教或破有讚空或毀空讚有不得此意難解聖言

頓은 **無二諦之殊**하고 **幽靈**이 **絶待**하ㅅ니ㅇ 疏頓無二諦等者顯中道第一義諦第一義諦有二釋一雙融明中即眞俗相即而不二便爲第一義也故仁王云於諦常自二(顯於解常自一顯融通達)

此無二眞入第一義故昔人云二諦並非雙恒乘未曾各一雙泯顯中謂非眞非俗但是心靈雙泯雙遮即下句幽靈絶待是也然非眞非俗復有二意一互奪故謂俗即眞故俗泯眞即俗故眞亡故華嚴經云無中無有二無二亦復無三世一切空是則諸佛法二顯體故謂言其非眞者所謂非是眞非謂是非眞非俗亦爾既非彼二但是靈明自體幽微玄妙不可思議故云幽靈絶待若要廣說即撿懸談第三門辨法性對破相宗五義差別中鏡影等喻及絶待靈心觀中義理叙之又雙泯者但泯對俗之眞不泯眞體亦得名爲非二諦而絶待故古人云一雙孤鴈掠地高飛兩箇鴛鴦池邊獨立 ○ 漸淵은 성달오모파사 다수시 성다르사모부처 성 道흠흐신열두힛ㅅ예한有흠爲함 法법이緣원흐아나我앙입스흐니르시나 신지法법이我앙입스흐니르지아나

ᄒᆞᆫ ᄉᆡ니일ᄒᆞᆫ후ᄆᆡ 初ᄎᆞᆷ 時ᄲᆡᆼ 有ᄒᆞᆷ 敎ᄀᆞᆯᄫᆞ이오 第ᄠᆡᆼ 二ᄉᆡᆼ 時ᄲᆡᆼ 中ᄃᆞᆼ에 編ᄇᆞᆫ 計ᄀᆡᆼ ᄉᆞᆺ자보ᄃᆞᆯᄇᆞ 巨ᄉᆞᆺ 諸ᄌᆞᆼ 法ᄇᆞᆸ의 空ᄏᆞᆼ 他ᄐᆞᆼ 圓ᄒᆞᆫ 成ᄲᆡᆼ에 仝ᄌᆡ 空ᄏᆞᆼ을니ᄅᆞ시나 依ᄒᆞᆼ 有ᄒᆞᆷ를니ᄅᆞ시ᄃᆡ아니ᄒᆞ시니일후ᄆᆡ 空ᄏᆞᆼ 敎ᄀᆞᆯᄫᆞ이오 第ᄠᆡᆼ 三ᄉᆞᆷ 時ᄲᆡᆼ 中ᄃᆞᆼ에 法ᄇᆞᆸ 相ᄉᆞᆼ 大ᄯᆡᆼ 乘ᄲᆡᆼ ᄉᆞᆺ 境ᄀᆞᆼ은 空ᄏᆞᆼ 코 心ᄉᆞᆷ은 有ᄒᆞᆷ이라니ᄅᆞ시니일후ᄆᆡ 中ᄃᆞᆼ에 一ᄒᆞᆫ 道ᄃᆞᆼ 敎ᄀᆞᆯᄫᆞ이오 第ᄠᆡᆼ 四ᄉᆞᆼ 時ᄲᆡᆼ 中ᄃᆞᆼ에 一ᄒᆞᆫ 切ᄎᆡᆼ 衆ᄌᆞᆼ 生ᄉᆞᆼ이 如ᄉᆞᆼ 來ᄅᆡᆼ 知ᄃᆡᆼ 見ᄀᆞᆫ을 여러 ᄇᆡᆺ 사 三ᄉᆞᆷ 乘ᄲᆡᆼ을 ᄆᆡᆺ 한 一ᄒᆞᆫ 乘ᄲᆡᆼ을 ᄆᆡᆺ 한 ᄀᆞᆺ 르ᄉᆞ 權ᄀᆞᆫ을 ᄆᆡᆺ 한 實ᄲᆡᆷ에 드리시니일후ᄆᆡ 同ᄃᆞᆼ 歸ᄀᆡᆼ 敎ᄀᆞᆯᄫᆞ이오 第ᄠᆡᆼ 五ᄋᆞᆼ 時ᄲᆡᆼ 中ᄃᆞᆼ에 涅ᄂᆞᆯ 槃ᄲᆞᆫ에 드르실 제 一ᄒᆞᆫ 切ᄎᆡᆼ 衆ᄌᆞᆼ 生ᄉᆞᆼ이 ᄀᆞᆯ 아 ᄃᆞᆺ 리 다 佛ᄲᆞᆯ 性ᄉᆞᆼ이 실ᄉᆡ 이 ᄃᆞᆺ 한 提ᄯᆡᆼ 예 나르리

會權歸實是大乘漸教中終極之教也頓者
有二一化儀頓謂華嚴經初成佛時稱性一
時頓說理事本末始終因果窮理盡性故二
逐機頓謂對上根具足凡夫頓指絶待中道
真性不同法華涅槃之類有三可破有權可
會但顯一真覺性即勝鬘密嚴金剛三昧如
來藏普光明藏圓覺等四十餘部文中皆少
說事緣直詮真性理智良由無三車除糞化
城等由緣可會也故指此經是頓之流類也
此是逐機顯體之頓非化儀之頓矣既非漸
次之教故不屬三時五時○이제 이경은 돈ㅅ類ㄹ리다

疏故如來下二

正叙三

一叙序分

故로 **如來**ㅣ **入寂光土**ㅎ샤○言寂光土者
天台大師立四土一凡聖同居土亦變化二
方便有餘土三實報無障礙土四常寂
光土法性也方便一土法相所無天台依智度
論及法華經立彼論九十五云阿羅漢先世

因緣所受身必應當滅住於何處成就佛道
答有淨佛土出三界外乃無煩惱之名於是
國土佛所聞法具足佛道如法華經說我於
餘國等今經云入於神通大光明藏三昧正
受乃至不二隨順故是寂光土也

凡聖一源에○疏凡聖一源者文云一切
如來光嚴住持佛佛亦即此故當土亦即自受用土以性
祖宗說理智又云是諸衆生清淨覺地

現受用身ㅎ샤○疏現受用身者他受用
也經云於不二境現諸淨土

會어시ㄴ○疏主伴同會者經文列菩薩衆
已結云與諸眷屬皆入三昧同住如來平
等法會 義 ○ 그럴시 如來ㅣ 寂滅光광
土ㅎ 在疏下 ㅎ샤 凡범 聖성 괘
ㅎ 根근 源원에 受수용用용身신을 나토샤 主
受수용用용身신은 他타受수용用용이라 主
ㅎ와 伴반괘ㅎ는 ㄷ몬거시ㄴ 經경文문에
菩보薩삻衆중을 버리고 結결ㅎ야 ㅣ르오ㄷ

한春권屬쏙과과三삼昧밍예三己三사如병
來링八平뻥等등호호신法법會회예호든다住
등호사 疏曼殊下二叙正宗 信解真正
미라 二 一

之正梵語也其名 曼殊 曼殊者即文殊
德之義如下疏釋 大士 ○疏大士者是 創
法身之大士故

問本起之因 호사시호○疏創問本起之因
者創是最初之義此有二創一
諸菩薩未問文殊先問此前未有人問故云
創二所問之事是佛法地位中最初要解之
法也此法之前更無佛法因果之義可爲初
起之要故疏本起者本因所起最初之心也
餘義檢下疏引起信了二覺發三心修
五行及華嚴善財大集法行等處而說 薄伽
疏薄伽者佛地經云如是我聞一時薄伽梵
論曰薄伽梵者謂薄伽聲依六義轉一自在
義二熾盛義三端嚴義四名稱義五吉祥義
六尊貴義如有頌曰自在熾盛與端嚴名稱

吉祥及尊貴如是六種義差別應知摠名薄
伽梵如是一切如來具有於一切種智皆不
相離是故如來名薄伽梵其義云何謂諸如
來永不繫屬諸煩惱故具自在義炎猛智火
所燒鍊故具熾盛義妙三十二大相等所莊
飾故具端嚴義一切殊勝功德圓滿無不知
故具名稱義一切世間親近供養咸稱讚故
具吉祥義具一切功德常起方便利益安樂
一切有情無解 尊貴義 至尊 ○疏至尊者至極之
慶故具 尊也且非人臣於國王
國王臣於上帝上帝即天帝也諸天奉佛三
乘賢聖亦事於佛佛是衆聖之尊如衆星月
爲最衆流海爲最衆聖
佛爲最故去至尊也 首提究竟之果 호사○疏
首提者初與也究竟果者經正荅中初標舉
云善男子無上法王有大陀羅尼門名爲圓
覺流出一切清淨眞如菩提涅槃及波羅蜜
教授菩薩此所標圓覺者大位在果體通染

淨故此約無上法王有之下云無始幻無明皆從中建立若論中一心即大位在因亦通染淨故標云衆生心釋之具覺不覺二義所言究竟者即論中始覺合本覺始本不二名究竟也

照斯真體ㅎ면 ○疏照斯真體者經云一切如來本起因地(諸佛目前皆依圓照(能照智也)清淨覺相(所照真體)永斷無明方成佛道(之義)(兼標義以下滅成本夢因形)

滅彼夢形ㅎ며 ○疏滅彼夢形者經云何無明善男子一切衆生從無始來云云乃至此無明者非實有體如夢中人夢時非無及至於醒了無所得(於夢形者明合喻無前無明照真也成今本約喻以顯因也滅)

知無我人면 **誰受輪轉**이리오 ○疏知無我人誰受輪轉者經云修圓覺者知是空華即無輪轉亦無身心受彼生死非作故無(非之方作觀破無也)本性無故(自生死性)

(本無末故) ○文殊大士ㅣ本是來랑ㅅ人니 ㄷ아ㄷ샌因ㅎ을처섬무러시ㄷ薄

伽깡至지尊존이究귱竟경ㅎ은果광를ㄷ저 자ㅂ샤 究귱竟경果광ㄴ은經경에처섬니 ㄹ샤ㄷ善쎤男남子쫑아우엄ㅅ은法법王왕이큰陁땅羅랑尼닝門몬을뒷ㄴ니일후미 圓원覺각이니一힐切쳉ㅅ淸쳥淨쩡ㅎ은眞진如셩와菩뽕提뗑와涅녈槃빤과波방羅랑蜜밀와를ㄹ려내야菩뽕薩삻을敎꾱授쑹ㅎ느ㄷ다ㅎ시니라 이眞진實씰ㅅ體쳉를 비치면ㄹ샤멘ㅅ얼구를滅멸ㅎ며 샤멘ㅅ얼구ㄹ은無뭉明명을가ㅈ비니라 我쏭와人신과업ㅅ을알면ㄴ 그우ㄹ을바ㄷ리오 疏種種下二依解修證三 一通明觀行

上根修證三種種幻化 一生於覺心ㅎ니오

一觀成同佛 種幻化等者荅普賢所徵以成修於觀行用心之本也謂普賢問云修大乘者聞此圓覺云何修行(微約當起根)若彼衆生知如幻者身心亦幻云何以幻還修於幻(幻修)何若諸幻

性一切盡滅則無有心誰為修行斷滅誰修斷(問上皆斷滅誰修斷)(解)(皆不斷)(若本不修行令妄想心云何解脫修)(修不失)佛答云一切衆生種種幻化皆生如來

幻아

圓覺이 盡아

(圓원면)○疏幻盡覺圓者此含兩重之意初即普賢章用心義理後即普眼章觸境長時用心正成觀行且初意者經云幻華雖滅空性不壞衆生幻心還依幻滅諸幻盡滅覺心不動依幻說覺亦名為幻若說有覺猶未離幻說無覺者亦復如是乃至知幻即離不作方便離幻即覺亦無漸次(如此名幻展轉盡也不滯)後約正修中釋者普眼章中佛說新學菩薩及末世衆生欲求如來淨圓覺心應當正念遠離諸幻先依如來奢摩他行堅持禁戒安處徒衆宴坐靜室恒念此身四大假合各離根塵緣相假名為心畢竟無有幻身幻心幻塵乃至幻滅亦滅此是疏中幻盡二字也幻滅滅故非幻不滅譬如磨鏡垢盡明現又如摩尼等此是疏中覺圓也心

心이 通코 法이 徧리

(厚후)○疏心通法徧者經云此菩薩及末世衆生證得諸幻滅影像故爾時便得無方清淨無邊虛空覺所顯發覺圓明故顯心清淨心清淨故見塵清淨云乃至一身多身一界多界一切清淨皆是心通也(然此義疏亦有法通故)(合而顯也)不言法徧者經云善男子虛空如是平等不動當知覺性平等不動(云云萬四千)子覺性徧滿清淨不動圓無際故當知六根徧滿法界(云云展轉)云乃至陀羅尼門徧滿法界云乃至始知衆生本來成佛此是法徧二字也(心通義即含法徧法故但以義即不合心通心以法即現時依通心即覺心即無可徧故無諸法限所現心通故雖無分限為徧也體分)然衆生成佛(種종)文是此門疏今乃取意於後通難門○種종中述之便當牒起問目也詳之可見

幻환化황ㅣ覺각心심에ㅅ나ㄴㅣ幻환이
다아 覺각이두려우면ㅁㅇ通통코法법

이ㄱㅌ
ㅎㅇㄹㄹ

疏心本下二句釋迷源

心本是佛이로ㄷㅣ **由念**

起而漂沈ㅎㅇㅎㅐㅇ 且初二句者前云衆生成佛今牒而舉之以荅金剛之難難云若諸衆生本來成佛何故復有一切無明若諸無明衆生本有何因緣故如來復說本來成佛十方異生本成佛道後起無明一切如來何時復生一切煩惱故今叙佛荅大意云心本是佛等也謂真心之體本來是佛然無始來妄念相續自不知是佛故論云一切衆生不名爲覺以從無始時來念念相續未曾離念故說無始無明佛頂云煩惱菩提二俱無始是知衆生無始已來元來是佛元來未悟非先來成佛後起無明等故無所難之過失也但以念念本空故心心本佛故論云所言覺義者謂心體離念離念相者等虛空界即是如來平等法身此說念相本離爲離念矣故云由念起而漂沈也漂者暫出人天沈者沈淪三惡道然真心體即法身身心互言皆得故論標云心即是法身

然但身非形相心非念慮故本是佛若妄認形相念慮即身心俱隱如肇公云隱在形殼等也故佛荅云始終生滅聚散起止念念相續循環往復種種取捨皆是輪迴未出輪迴而辨圓覺彼圓覺性亦同流轉譬如動目能搖湛水又如定眼猶迴轉火雲駃月運舟行岸移等善男子諸旋未息彼物先往尚不可得何況輪轉生死垢心曾未清淨觀佛圓覺而不旋復是故汝等便生三惑疏云善男子下疏云此等正同論中無始念念相續等也

不移ㄷㅡㄹ **因舟行而驚馬**ㅎㅇㄴㅡㄴㅣ 移等者密翻經云舟行岸移以顯心實是佛但迷似衆生岸實是停但舟行似轉故云驚驟驚者馳也驟者馬疾行也馳驟皆是急走之相即此喻相荅意已明況有空華金鑛之喻

頓除妄

宰ㅎ면 空不生華ㅎ며 ○疏頓除妄宰空不生華者經云譬如幻翳妄見空華幻翳若除不可說言此翳已滅何時更起諸翳何以故翳華二法非相待故亦如空華滅於空時不可說言何時更起空華何以故空本無華非起滅故此喻喻頓悟心體是佛即自覺本無念慮故序合意云頓除妄宰也言頓除者達之本無也 漸竭愛源ㅎ면 金無重鑛ㅎ리라 ○疏漸竭等者此喻即漸修也經云善男子如銷金鑛金非銷有既已成金不重爲鑛經無窮時金性不壞偈云金非銷故有等合云一切如來妙圓覺心本無菩提涅槃成佛輪迴但聲聞所得猶不至彼親證何況以思惟心測圓覺境如取螢火燒須彌山乃至復結空果等然法合鍊鑛之文正是彌勒章中斷輪迴根本是疏也此但說道理之喻其除斷之法即是後今撮畧前後而叙之云漸竭愛源也後

文者一切衆生從無始際由有種種恩愛貪欲故有輪迴乃至造惡墮獄造善人天皆不成聖翻二種障顯出五性皆是輪迴愛源也此斷下云若諸衆生於大圓覺起增上心當發大願依願修行漸斷諸障障盡願滿便登解脫清淨法殿證大圓覺妙莊嚴域 ○

ᄆᆞᆞᆫ 본래 ᄒᆞ여 ᄒᆞᆫᄆᆞᆷ 로 ᄒᆞ여 ᄒᆞᆫᄆᆞᆷ 은 ᄃᆞᆫᄀᆞᆯ 시니 ᄉᆞᆷ 천 에 잠간 날 시오 況 ᄯᅳᆷ 은 ᄃᆞᆫᄀᆞᆯ 시니 三惡 악道 ᄃᆞᆫᄀᆞᆯ 에 빠ᄃᆞᆯ 시라 ᄀᆞᆫ 實 씰 로 ᄒᆞᆫᄆᆞᆷ 도 아니ㅣ호ᄃᆡ 비ㅣ 너ᄆᆞᆯ 因 ᄒᆞᆫ ᄒᆞ야 ᄃᆞᆫᄂᆞ니 妄 망 남자 ᄒᆞᆯ다ᄃᆞᆯ면 虛 허 空 콩 애 고ᄌᆡ 나ᄃᆞ 아니ㅣ ᄒᆞ며 愛 힝 ㅅ 根 근 源 원 을 漸 졈 漸 졈 ᄃᆞᆫᄀᆞᆯ 면 金 금 이 다시 鑛 광 ᄃᆞᆫᄀᆞᆯ 이ㅣ ᄃᆞᆫ 아니ㅣ ᄒᆞ리라 ㅅ 鑛 광 은 쇠 아니ㅣ ᄂᆞᆯ 여ᄂᆞᆫ ᄃᆞᆯ ᄒᆞ리라

疏理絕下三略辨地位一一依位漸證理絕修證ㅎ니 ○此初一句者經云圓覺自性非性性有循諸性起無取無證於實相中實無

菩薩及諸衆生何以故菩薩衆生皆是幻化幻化滅故無取證者譬如眼根不自見眼性自平等無ㄴㅣ○疏智似階差者衆生迷倒未能除滅一切幻化於滅未滅妄功用中便顯差別

覺前前非名後後位

ㄴㅣ○疏覺前前非名後後位者經云若遇善友教令開悟淨圓覺性發明起滅即知此生性自勞慮若復有人勞慮永斷得法界浮即彼淨解爲自障礙故於圓覺而不自在位十信見解爲礙雖斷解礙由住見覺覺礙爲礙而不自在位賢有照有覺俱名障礙是故菩薩常覺不住照與照者同時寂滅如自斷頭以礙滅礙礙已斷滅無滅礙者埋一刃障礙即究竟覺得念失念無非解脫成破等乃至法界海慧照了諸相猶如虛空課○ㄷㅏㅎㅁ

ㅎㅏㅂ證징ㅎㅁㄱㅡㅌㅣㄴㅏ智징ㅎㄴㅡㄴ前쩐前쩐엣ㅅ이ㅇㅡㅁ아로미일후미後薄

後薄ㅅ位위ㄴㅣ前쩐前쩐이ㅇㅡㅁ아로미일후미後薄後薄ㅅ位위ㄴㅡ經경에ㄴㅣㄹ샤ㄷㅣㅎㅡ다가이ㄷㅡ뻐ㅎㅣㄱㅡㄹ처여러알에ㅎㅡ로ㅁㅡㅌ맛니며조ㅎㅡ圓원覺각性성으로起킝와滅멸와ㄹㅡ發벓明명ㅎㅡ면ㄴㅡ이生성이性성이제잇비분별ㅎㅡ미永영히ㄱㅡㅊㅡ면法법界괭조ㅎㅡ호ㄹ어드리ㄴㅣ곤려조ㅎㅡ아로미제ㄱㅡ료미ㄷㅡ외야圓원覺각에自쩡在쩡ㅌㅣ로ㅎㅡ니라ㅎㅡ시니十씹信신位위라아로미ㄱㅡ름ㄷㅡ외요ㅁㅡㅌ보니아비록아로ㄱㅡ료ㅁㅡㅌㅡㅈㅡ나손지見견覺각自애住뚱ㅎㅡ야ㄱㅡ름아로미ㄱㅡ료미ㄷㅡ외야쩡在쩡ㅌㅣ로ㅎㅡ니라ㅎㅡ시니賢현位위라照죵이시며覺각이쇼미ㅍㅏ일후미ㄱㅡ료미라니이럴시菩뽕薩삻은샹녜覺각ㅎㅡ미住뚱ㅌㅣ아니ㅎㅡ아照죵와照죵ㅎㅡ는것괘ㅎㅡ뻬寂쩍滅멸ㅎㅡ미제머리버흠곤ㅎㅡ야ㄱㅡ료ㅁㅡ로ㄱㅡ료ㅁㅡ로滅멸ㅎㅡ야ㄱㅡ처입스면ㄱㅡ

료몰滅멸호리업다호시니聖성位위라一
일切체시그료마곧究구竟경覺각이니得
득호호念념과失실호念념이解해脫탈아니
니업스며法법界계海해慧혜로諸성相상
이虛허空콩로호몰비취요매 疏況妄下 二忘心頓
니르다호시니果과位위라

證 況妄애 忘起滅호야○經云一切菩薩及末世衆生居一切時
不起妄念於諸妄心亦不息滅住妄想境不
加了知於無了知不辨真實聞此法門信解
受持不驚不怖是則名 德等圓明者焉○疏여
為隨順覺性不碍地位 德等圓明者同佛也衆菩薩二乘同佛具經云當
知衆生已曾供養百千萬億恒河沙諸佛菩
薩佛說是人名為成就一切種智果智圓○호몰며妄망애起긔
와滅멸와를니저德
득이두려우며불고매골오니저德득
이두려우며불고매골오몸부터몸호미라

疏然出下 一別明觀行中根修證二初結前上根生後中下之意也 然이나出
廐良駒ㄴ已搖鞭影이이니와○謂良善之
馬廐中牽出纔見鞭影即馳驟長衢不假頻更鞭撻如上根人纔聞
前段法門即生解起行乃至證入不假三觀諸輪等也鞭影之言即是中論云如駃馬見
鞭影而行也天台大師亦用此喩涅槃經中亦有此意而文不同彼云如御馬者凡有四
種一觸毛二肉三骨四隨其所觸稱御者意如來亦爾以四種法調伏衆生一為說生令受佛
語如觸其毛隨御者意餘老病死皆例此也 骨文 肉 御者調馬無有決定佛調衆生決定不虛故号
我為調御丈夫兩處文皆況舉一隅而示之可以三隅反也 麤塵大寶ㄴ須設治方일시○疏理
塵大寶須設治方者論中因說發心修行便有問曰上說界一相佛體無二何故不唯念真如復假

求學諸善之行荅曰譬如大摩尼寶體性明
淨而有鑛穢之垢若人唯念寶性不以方便
種種磨治終無得淨如是衆生真如之法體
性空淨而有無量煩惱垢染若人唯念真如
不以種種熏修亦無得淨以垢無量徧一切
法故修一切善行以爲對治若人修行一切
善法自然歸順真如○그러나馬鳴菴에
法故(染中順法外違妄故)나는 듯흐ㅁ로흐마
쳣그리메뭐여니와 ■ 듯흐ㅁ리ㄱㅅ쳣그리
메보고즉재관길헤ㄷ라ㅈ조듯ㅁ로ㅂ는ㄷ아
니흐미上앙根고엣ㅅ사ㄹ미ㄱㅅ法법ㄷ들고즉
재아로ㅁ로내야行행을니ㄹ와다證징흐야
ㄷ로매니를오三삼觀관諸졍輪륜ㄷ들흘ㅂ는
ㄷ아니홈곤흐니라 ■ 듯그레무텟ㅅ는큰보
비는모로매다ㅅ로ㅁ法법을펴릴시 ■ 起킝
信신에닐오ㄷ가ㅈ졸비건댄큰摩망尼닝寶
봉ㅣ(體톙性셩)이ㅂ러고조흐ㄷ鑛광ㄱ러운
뻐이ㅅ기ㄷ는흐다가ㅅ사ㄹ미오직보비ㅅ性셩을

念념흐고方방便뻔으로種죵種죵으로ㄱ
라다ㅅ라ㄱ아니흐면ㅁ츰내조흐ㅁ로得ㄷ
ㄷ몯흐리니이ㄱ티衆즁生셩의真진如셩
法법이體톙性셩이空콩흐고조흐ㄷ無뭉
量량煩뻔惱흥뻐ㄱ러우미잇거ㄷ흐다가
사ㄹ미오직真진如셩를念념흐고種죵種
죵으로熏훈習쓥흐야닷ㄷ아니흐면
또조흐ㅁ로얻ㄷ몯흐리라흐시니라 故跋
三下二正叙
中根法門

故三觀을澄明흐샤ㅇ澄印止也明即觀

也威德問云大城四門隨方各八云云頌說
一切方便并修行人揔有幾種佛荅無上妙
覺周徧十方於諸修行實無有二方便隨順
其數無量(歸源義前義云無修一方便隨修等門叙圓攝
所歸循性差別當有三種

真假俱로入

假俱入者釋上三
觀入圓覺也真假俱三字一字是一觀謂真
入假入俱入也真謂泯相澄神觀(奢摩他)假謂

起幻銷塵觀三摩提也俱謂非真非假亦真亦假即絶待靈心觀禪那紐也之河諸輪을綺互히單複圓修ㅎ시며○疏諸輪綺互者謂二十五輪有開有合或先後或同時互相交絡猶如錦綺故云綺互單複圓修者單修複修圓修也謂二十五中初三單後一圓中間相者三觀互舉爲首各成七觀三七成二十一要具說者即檢下經文疏文叙之其圓修者經文云若諸菩薩以圓覺慧圓合一切於諸性相無離覺性都無引四相이潛神ㅎ야非覺違拒ㅣ며○疏四相潛神非覺違拒者淨業問云若此覺心本淨因何染汙使衆生不入佛言衆生從無始來妄想執有我人衆生壽命認四顚倒爲實我體云云由此不能入清淨覺非覺違拒諸能入者有諸能入非覺入故是故動念息念皆歸迷問又云如人不自斷命又云衆生生[illegible]

故又云不了四相多劫勤苦終不成聖果云云讚喜謗嗔則知我相堅固執持潛伏藏識遊戲諸根曾不間斷其四相之義在下敎起因緣門中略釋至本文廣釋若要具說檢而叙之四病을出體ㅎ시며○疏四病出體者普覺問求何等人修何法行何行除何病佛答云當求一切正知見人云云心不住相不著二乘乃至心恒清淨[illegible]凡四病者一作病若有人言我於本心作種種行欲求圓覺乃至圓覺非作得故二任病不斷生死不求涅槃無起滅念任彼一切三止病我今自心永息諸念四滅病我今永滅一切煩惱身心畢竟空無所有心華를發明ㅎ시고○疏心華發明者若善男子於彼善友不起惡念即能究竟成就正覺心華發明照十方刹○三삼觀관을말기샤眞진과假가와俱구와로들에ㅎ시며眞진은相상을업게ㅎ야神신을말기

는 觀관이 오 假가 강은 幻환을 니르와다 듣그
를 노기는 觀관이 오 俱구는 眞진 아니며 假
강 아니며 亦진 眞진이 며 亦진 假강 ㅣ 니 곤기드
흠 그 츤 靈령 ᄒᆞᆫ 모 ᄉᆞᆷ 觀관이라 ▣ 諸졍 輪륜
ᄒᆞᆫ 김 ᄉᆞᆺ 드 ᄉᆡ 單단 과 複복 과 圓원 과 로 닷 게
ᄉᆞᆺ 며 ▣ 諸졍 輪륜을 김 ᄉᆞᆺ 다 ᄒᆞ 모 ᄃᆞᆫ 二싱十
ᄡᆞᆸ 五옹 輪륜 이 펴 미 이 ᄉᆡ 며 ᄆᆡ 호 미 이 ᄉᆡ 시
옥 몬 져 ᄒᆞ 며 後흉 에 ᄒᆞ 며 ᄉᆞ 혹 ᄒᆞᆫ 幽유 ᄒᆞ 야 ᄉᆡ
드 ᄉᆞᆺ 구 미 錦금 과 김 과 곤 ᄒᆞ 니 라 單단 複복
圓원 修슝 는 二싱十ᄡᆞᆸ 五옹 輪륜 中듕 에 ᄎᆞᆺ
세 ᄒᆞ 單단 이 오 後흉 ᄉᆞᆺ 호 ᄂᆞ 나 ᄒᆞᆫ 圓원 이 오 中
듕 間간 앳 複복 은 三삼 觀관을 서 르 드 러 ᄆᆡ
리 사 마 各각 각 七칠 觀관을 일 우 니 三삼
七칠 이 二싱十 ㅂ 一힐 이 드 외 니 라 ▣ 네 相
샹이 神씬 에 수 미 실 쏘 니 언 뎡 ▣ 네 相샹 은
我앙 와 人신 과 衆즁 生싱 과 壽쓩 命명 이 니
經경 에 니 ᄅᆞ 샤 ᄃᆡ 기 려 든 깃 고 ᄀᆞ 지 저 든 怒
ᄒᆞᆫ 면 我앙 相샹 이 구 ᄃᆡ 자 바 藏짱 識식 에

ᄀᆞ 마 니 수 ᄆᆞ 며 諸졍 根근 에 노 로 미 ᄯᅡᆺ 간 도
ᄀᆞᆺ 디 ㅇ ㄴ 호 물 알 리 로 다 ᄒᆞ 시 니 라 ▣ 覺각
이 ᄀᆡ ᄉᆞ 논 디 ㅇ 니 며 네 病뼝 을 體뗑 을 내 샤
▣ 네 病뼝 은 ᄒᆞ 야 ᄂᆞ ᄒᆞᆫ 作작 病뼝 이 오 ᄃᆞᆯ ᄒᆞᆫ 任
심 病뼝 이 오 세 ᄒᆞᆫ 止징 病뼝 이 오 네 ᄒᆞᆫ 滅
멷 病뼝 이 라 ▣ ᄆᆞ 슴 고 ᄌᆞᆯ 펴 ᄇᆞᆯ 기 시 고
疏복 復복 令령 下하 三삼 道도 場량
加가 行행 下하 根근 修슈 證증

復令長中下期로 ○ 文云 撮촬 意의 略략 弼필 若

佛불 滅멸 後후 信신 圓원 覺각 心심 欲욕 修슈 行행 者자 若약 在재 伽가 藍람 安안 處처
徒도 衆중 有유 緣연 事사 故고 隨수 分분 思사 察찰 如여 我아 已이 說설 若약 無무 他타
事사 因인 緣연 即즉 建건 道도 場량 當당 立립 期기
限한 長장 百백 下하 二이 十십 ㄱ 日일 安안 置치 淨정 居거

克念攝念ᄒᆞ야 **而加**

ᄒᆞ 시 며 ○ 疏소 克극 念념 攝섭 念념 而이 加가 行행 者자 謂위 令령 施시
設설 形형 像상 云운 云운 懸현 諸졍 幡번 華화 經경 三삼 七칠 日일 稽계 首수 十십
方방 佛불 名명 求구 哀애 懺참 悔회 遇우 善선 境경 界계 得득 心심 輕경 安안 輭연 剛강 切절
檢검 過과 三삼 七칠 日일 一일 向향 攝섭 念념 云운 云운 非비 彼피 所소 聞문 一일 切절
境경 界계 終종 不불 可가 取취 攝섭 念념 也야

別編互習으로 ○ 疏소 別별 編편 互호 習습
者자 謂위 別별 習습 編편 習습 互호 習습

也別習者若修奢摩他先取至靜不起思念
靜極便覺若修三摩鉢提先當憶想十方如
來菩薩依種種門漸次修行等若修禪那先
取數門心中了知生住滅念分齊頭數如是
周徧四威儀中分別念數無不了知漸次增
進乃至知百千世界一滴之雨如目覩所受
用物是名三觀初首方便疏徧習者文云若
諸衆生徧修三觀勤行精進即名如來出現
於世疏互習者文云若末世鈍根不得成就
由昔業障當勤懺悔愛嫉妬謂下根
之人於上三種淨觀中隨學一事此觀不得
復習彼觀心不放捨漸次求證諸障若消滅
佛境便現前

業障惑障이 而銷亡하야 ○疏業障惑障而消亡者
文在互習中也可配之

成就慧身하야 **靜極覺徧**하야 **百千世界**예 **佛境**이 **現前**케하시니 ○疏成就慧身是華嚴之文與

此義同故用之也謂知一切法即心自性全
體是慧故云身也一切即心自性是靜極全
慧即覺徧靜極覺徧是別習奢摩他之文如
上所引百千世界是別習禪那之文亦如上
引佛境現前即彼倡文諸障若○소長땅과
消滅佛境便現前亦如上引 中등과下과
뜻옷期긍限쌘으로念념을자바行행을로念념을一힐定평하며
念념을자바行행을더으게하시며別뽐와
徧변과互홍와習씹으로別뽐習씹은흔
觀관을各각別뽐하닷곧시오徧변習씹은
觀관을互홍習씹은세觀관
을서르닷곧시라 ▣業업障장과惑뽁障장
이노가업서慧혜身신을일워 ▣一힐切체
法법이곧마음이自쩡性성안들아라 ▣寂쩍靜
쩡이慧혜근시닐오되身신이라 ▣寂쩍靜
쩡호미至찡極끅고覺각이구두하야百빅
千천世쎙界갱예부텃境
이알피난게하시니 疏是以下三
敘流通分

以로 聞五種名이 超刹寶施福ㅎ며 ○五名者文云是經名大方廣圓覺陁羅尼亦名修多羅了義亦名祕密王三昧亦名如來決定境界亦名如來藏自性差別汝當奉持超刹寶施福者文云假使有人純以七寶積滿三千大千世界以用布施不如有人聞此經名及一句義 說半偈義 勝河沙小乘ㅎ니 ○疏說半偈義勝河沙小乘者文云假使有人教百恒河沙衆生得阿羅漢果不如有人宣說此經分別半偈上來第二正敍竟 ○ 잣일홈ㄷ로ㅁ가 刹찰앳보비布施시ᄒᆞᆫ福복에견ᄃᆞᆫ니ㄹ사ᄃᆞᆫ니라히라文문에ㄴㄹ사ᄃᆞᆫ니라히라沙ㄹ이純쑨히七칠寶보로三삼千쳔大땡千쳔世솅界갱예사ᄒᆞᆫ치와ᄇᆡᆨ布보施시ᄒᆞᆫ야도사ㄹ이經경ㅅ일홈과ㅎᆞᆫ句구ᄲᆞᆫ드ㅌᆞᆫ사ㄹ이ㄴㄴㄹ라 半반偈뗑ㅅ뜯

니ㄹ오이河항沙사ㅅ小쇼乘씽에더ㅎᆞᆫ니니 疏實由下三結勝 實由無法不持ㅎ며 無機不被者也ㅣ라 ○無法不持者是一切法摠皆持也經云有大陁羅尼門陁羅尼是梵語此云摠持故也無機不被即上所敍上中下根皆令證入 ○實쌀로法법을가지디아니ㅎᆞᆫ아니ㅎᆞᆫ업ㅅᆞᆫ전ᄎᆞᆫ라機긩ㄹ니ㅣㅣ디 疏噫巳下三敍疏六 一標意 噫라 ○噫者陸韻云恨聲也孔安國云心不平之聲也 巳歌ㄷ 和衆이라 曾量이 騰於猿心이오 雪面이오 應稀라 了義ㅣ 匿於龍藏ㅎ니라 ○疏巳歌心者巳歌則巳峽歌辭如唱竹枝之類隨發一聲無有不解齊和之者今以之況淺近權小之教舉之開之易信易順似量者去聖時遥源流益別國土隔遠教理澆訛或造論或

注經或疏鈔或開禪其中失聖意者千萬得意者無一二習俗生常濫似於真無由辨得故云似也復云量者即因明論本偈云能立與能破及似唯悟他現量與比量及似唯自悟此中直現量真比量似現量非證似比量非證似議真立破似立破今意云開禪者不親自契悟心源都無觀慧之力但積習他要妙之語記持而說此非真現量似現量也講說者不親自於心識中推斥比度勘會大小乘性相法喻但隨一家本領即依文熟記而揚於人是名非真比量似比量也故都云似量也騰於猿心者凡夫之人貪著其事多是意在文字語言以為立身事業少有照理照心以求出離被名相騰擲如猿猴之心也雪曲者即陽春白雪歌曲調高難和設有一人發聲者千萬人中難得應和應和者或三二一故云稀也今了義之宗雖有其教在經藏之中章疏之家多不弘演即法界起信實性佛性菩提資糧等論如來藏密嚴法句不增不減菴提之類數十部經及諸大部經中了義之句亦無數也皆是人少弘之故義理隱匿○噫라巴방歌가는 和화흐리한디라似

상량量량이나뵈므스물봄놀이고巴방歌
강는巴방이나뵈므스물봄놀이고
아가디몰흐리엄서모다和화흐는니트면쉬
가오온權권엣져근敎광를드러들이면쉬
이미드뎡答답흘이順쓘호물가줄비니라和화
는이對뒹가지니흐시라似상는곤흘시라量량
이세가지니흐현量량이니오직佛
果광를자니흐니라後쏭得득智딩를니
르와다實씱相샹理링보미들히잇ㄴ니흐
나흐定평位위니定평心심이몰가境경을
다보기證징흘시일후미現현量량이니現
은보기리시라들흐散산心심現현量량이
니五옹識식이色식等등緣원흘時씽節졇
에親친히보기取쥥흐야境경體뎽예조비

보터分분明명히顯현現현ᄃᆞᆫᄒᆞᆯ시니現현
은親친ᄒᆞᆯ시라ᄃᆞᆯᄒᆞᆫ比삉量량이니凡뻠夫
붕로서等등覺각애니르리通통히자바
ᄅᆞ니가서ᄌᆞᆯ벼혜여아로ᄆᆞᆯ날시니머리ᄉᆞ바니
ᄅᆞᆯ보고ᄇᆞᆯ있ᄂᆞᆫ듣가ᄌᆞᆯ벼아ᄃᆞᆺ호니비록ᄇᆞ
ᄅᆞᆯ몰보고ᄇᆞᆯ있ᄂᆞᆫ도말ᄉᆞ미虛허타아니ᄒᆞᆫ젼치라
세ᄒᆞᆫ證징흠언量량이諸졍佛뿛經경敎
로證징ᄒᆞᆯ시라이제ᄲᆞ데늴오ᄃᆡ禪썬열
리親친히제ᄆᆞ令령根근源원을마초아
ᄒᆞ이ᄯᅡ觀관慧휑ㅅ力ᄅᆞᆨ이업고오직ᄂᆞᆫ
조ᄉᆞ로ᄋᆡ微밍妙묑ᄒᆞᆫ마ᄅᆞᆯ뫼화니거
持띵ᄒᆞ야ᄂᆞᆯ이ᄂᆞᆫ真진現현量량이記긩아
니라似씽現현量량이라講강ᄒᆞ야ᄌᆞᆯ벼르
親친히제心심識식中등에미라가ᄌᆞᆯ벼해리
여大땡小숑乘씽ㅅ性셩고ᄀᆡ몰ᄒᆞ고
辭띵喻융를마초ᄃᆡ몰ᄒᆞ고오직一과法법
ㅅ으ㅅ드ᄆᆞᆯ조차곧ᄀᆞᆯ家강과
ᄒᆞ야ᄉᆞ라ᄅᆞ미ᄀᆡ차곧ᄀᆞᆯ
ᄉᆞ라ᄅᆞ미ᄀᆡ펼ᄉᆞ그를
이일ᄇᆞ터
후미니
眞진記긩
比삉持띵
量량

량이아니라似씽比삉量량이라ᄇᆞ
몰봄ᄂᆞᆯ요ᄆᆞ凡뻠夫붕ㅅ사ᄅᆞ미그이를
탐着ᄯᆞᆨ호야해ᄲᆞ디文문字쫑語엉言언에
서몸셰욤事ᄉᆞ業업밍골오理링를비취
여ᄆᆞ스ᄆᆞᆯ비취여여희여나ᄆᆞᆯ求꿍호리져
名명相샹이봄ᄂᆞᆯ요ᄆᆞᆯ니부미나비ᄆᆞ숨져
곤곤호니라

雪셟曲콕은對됭答답호리
곤디라了ᄅᆞᆷ義읭ㅣ龍룡藏짱애수ᄆᆞ니라져

ㅅ雪셟曲콕은陽양春츈白뻑雪셟ᄂᆞᆯ에니소
소리노파和홍호미어려울시호사ᄅᆞ미소니
리내야노千천萬만人신中등에對됭答답
ᄒᆞ리두ㅿ시만ᄒᆞᆯ시적다ᄒᆞ니라了ᄅᆞᆷ義읭ㅅ
宗종이비록그敎꾱ㅣ經경藏짱ㅅ中등에
이시나사ᄅᆞ미펴부ᄅᆞ리져글시義읭理링에
수ᄆᆞ니라龍룡藏짱은부터滅멿度뚱ᄒᆞ신
一힐千천年년後흥에魔망와外욍道뚱왜
盛썽ᄒᆞ야正졍敎꾱를ᄒᆞ야ᄇᆞ릴시沙상竭
ᄭᆞᆯ大땡龍룡이부텻가ᄠᆞᆫ付붕囑죡을ᄌᆞ

자經경律률을다가져龍룡宮궁에드리니이海해藏장이라 疏宗密下二述

一疏因緣五

雙述道德 宗密이 鬚專魯誥고다가○鬚者陸韻云小兒鬚也鬚齒之年謂十歲之閒矣魯誥即儒教也教主姓孔名丘字仲尼魯國人也爲魯大夫故呼爲夫子今目其國故云魯也誥即典誥謂魯孔丘所傳述先王典誥也故尚書有大誥康誥酒誥洛誥仲虺之誥梓材之誥等篇名 冠討笠墳고도리○疏冠討笠墳者冠讀謂束鬚戴冠平聲即年二十當冠鬚帶之歲也今但云冠者即取束鬚戴冠聲以爲裝冠也不取帶者帶名紳紳者是古人之大帶也在腰下繫之笠墳者釋教也笠者天竺國也墳者亦是典墳謂三皇五帝之書謂之典墳說大道常道也今借此方之語以目佛教中經論也所言鬚冠但汎指初習之閒歲數若實而言之即七歲乃至十六七爲

儒學士十八九二十一二之閒素服莊居聽習經論兼覆疏講二十三又却全功專於儒學乃至二十五歲方遇良緣而出家矣 俱溺筌蹄고도리○疏俱溺筌蹄唯味糟粕者意言但專文言不得其意且儒教宗意在道德仁義禮智信不在於馳騁名利使令揚名後代者以道德孝行爲名不以官名才藝爲名也釋教意在通達自心修習定慧具於悲智灼然不在立身事業當時雖習之而迷之故云爾也筌者南人捕魚之器蹄者兎迹亦作罤字即取兎之器罝網之類也筌喻言詮蹄喻名教周易略例云言生於象(結繩)故可尋言以觀象(象生)象生於意(象從意生)故可尋象以觀意意以象盡象以言著故得象忘言得意忘象猶蹄者所以在兎得兎而忘蹄筌者所以在魚得魚而忘筌然則言者象之蹄也象者意之筌也存言者非得象存象者非得意象生於意而存象焉則所存者乃非其

象也言生於象而存言焉則所存者乃非其言也解曰以蹄喻言以筌喻象筌入水不可見蹄在陸而可觀詳之可知矣又象通能所故兎筌二事揔喻於象望能望所其義異故又略例次前又云然則忘象者乃得意也忘言者乃得象也（下心力文但說此不須尋已此上即得意在忘象得象在忘言故立象以盡意而象可忘也（夫易以道幽意玄至理難分曉設筌蹄而理爲喻立意無言）忘分意限故可忘言詮理故不重畫以盡情而畫可忘也（聖人觀象廣合變通象應重物爲徵隨其事義卦畫類成三才設也）

爲其象合義可爲其徵義苟在順何必牛乎爻苟合順何必坤乃爲牛義苟應健何必乾乃爲馬（卦變又不足推致一方一事乃通牛不獨以變牛爲難爲順爲何馬必不專以馬爲牛爲馬而象生之不爲獨用滯隨於義剛者柔爲之說也）而惑者定馬於乾按文責卦有以牛牛無爲坤坤即牛爲文非責卦此而乃取其繆何苟定此言甚有以言謬馬惑徑無爲者實乾乾必無馬乾則偽說滋漫難可紀矣（隨卦之通之廣本欲盡情盡象立象盡意忘言亦是故觸類可通情盡意通情盡意忘也）

深紀難也可互體不足遂及卦變變又不足推致五行一失其源巧愈彌甚（約違理乖宗取於象通依變行卦變此實之喪失義巧本源巧偽曲六位曲乖滋甚）

義無所取蓋存象忘意之由也（象若猶依致互體五行取求義縱使值遇而義亦無取蓋是棄本逐末以求也忘象以求義此意捨末見本存末忘象以求義此意見矣）

唯味糟粕

○卜卦○疏唯味糟粕者酒糟麻粕也莊子外篇云（但取意用說貝輪引人世之所貴道者書也書不過語語有貴也語之所貴者意也意有所隨意之所隨者不可以言傳也而世因貴言傳書世雖貴之哉猶不足貴也爲其貴非其貴也（所貴之恒在意之恒在）故視而可見者形與色也聽而可聞者名與聲也悲夫世人以形名聲色爲足以得彼之情夫形色名聲果不足以得彼之情則知者不言言者不知而世豈識之哉（此忘言絕意學也去尚之意）桓公讀書於堂上輪扁斲輪於堂下釋椎鑿而上問桓公曰所讀者何言也公曰聖人之言也問公之所讀者何言也

曰聖人在乎公曰已死矣曰然則君之所讀者古人之糟粕矣夫桓公曰寡人讀書輪人安得議乎有說則可無說則死輪扁曰臣也以臣之事觀之斲輪徐則甘而不固疾則苦而不入不徐不疾得之於手而應於心口不能言也有數存焉於其閒臣不能以喻臣之子臣之子亦不能受之於臣是以行年七十而老斲輪古之人與其不可傳也死矣然君之所讀者古人之糟粕已矣

○ 宗密이 다가 髮髻애 魯語를 專이라 語는 글위리니 孔子ㅣ 魯國에 入ㅎ야 論호되 ▣ 冠은 머리조저 天冠은 天子ㅣ 國에 이나 히ㅅ글 은 講ㅎ고 ▣ 冠은 그믜리니 라 ▣ 冠은 고기잡는그물이니 ▣ 筌은 고기잡는 그물이니라 ▣ 筌은 그믜리니

山南梁洋是漢江果閬州嘉陵江東川涪江西川道江亦云陀江錦江遂州在涪江西岸宗密家貫果州因遂州有義學院大闡儒宗遂投諸進業經二年後和尚從西川遊化至此州遂得相遇問法契心如針芥相投也經說佛問迦葉從兜率天輒一芥子於闍浮提豎一針鋒使芥子投於針鋒此事難易迦葉答言甚爲難也佛言正因正緣得相值遇更難於此今得相遇故言投也

禪遇南宗

京卜○卩○疏禪遇南宗者和尚所得之法是嶺南曹溪能和尚宗旨也

教逢斯典

京卜○疏教逢斯典者宗密爲沙彌時於彼州因赴齋請到府吏任灌家行經之次受得此圓覺經讀之兩紙已來不覺身心喜躍無可比喻自此耽翫乃至如今不知前世曾習不知有何因緣但覺耽樂徹於心髓訪尋章疏及諸講說丘伯一數年不倦前後遇上都報國寺惟慤法師疏一卷先天寺悟實禪師疏兩卷薦福寺堅志法師疏四卷北都藏海寺道詮法師疏三卷皆反覆研味雖互有得失皆未備經宗雖逢講者數人亦無異說螢燒妙高矣下圓覺經

山谷終不能論南北頓漸兩宗禪門又分同華嚴圓教具足悟修門戶難得其人也宗密遂研精覃思竟弗疲厭後因攻華嚴大部清涼廣疏窮本究末又通閱藏經凡所聽習咨詢討論披讀一一對詳圓覺比擬本末以求旨趣至元和十一年正月中方在終南山智炬寺出科文科之以爲綱領因轉藏經兼對諸疏搜采其義抄畧相當纂爲兩卷後却入京都每私檢之以評經文亦未敢修疏綸緒因爲同徒評量數徧漸覺通徹不見疑滯之處後覺化緣勞慮至長慶元年正月又退居終南山草堂寺絕迹息緣養性錄智至二年春遂取先所製科文及兩卷纂要兼集數十部經論數部

諸家章疏課虛和寂率愚爲疏至三年夏中方遂功畢餘如下說

一言之下

애 **心地開通**ㅎ며○疏一言之下心地開通者目所悟心猶如地也見道證眞已去名十地者義亦同此本業經云地名生成生成一切名爲持持百萬僧祇功德亦名因果十地論云生成佛智住持故唯識云與所修行爲勝依持

一軸之中에

義天이 **朗耀**ㅎ니○疏一軸之中義天朗耀者於此一經達一切義華嚴序云空空絕迹義○幸ㅎ혀涪뿡上쌍애涪뿡는 天之星象璨然

ㅎ와芥갱子종왜서르마자부톄迦강葉셥ㅎ와芥갱子종왜서르마자부톄迦강葉셥ㅎ와芥갱子종왜서르마자부톄迦강葉셥

道非常道라 **諸行**이 **無常**이라ᄒᆞ니ㅇ 初二句躡前迷意也

意明須者溺言象之時由所悟之道不是真常不變之體故所運之心所行之行所計諸法皆是生滅無常如以金所為之器器器皆以土所為之器器器皆无也此義如前釋本起因中所釋後釋文殊問中當更廣明然道非常道之語出道經也德經雖兩具句引得時也但彼云道可道經之術正非常道非常道然嚴妙生無之道說也藏名可名高世貴尊之名榮

非常名爲嚴養神匿無寂方安化猶說道非常名明然常在之分之名玉常處名如瓦間嚴明玩珠之在未

然諸行無常之言即涅槃十四羅利所說之偈也具云諸行無常是生滅法生滅滅已寂滅為樂彼經義訣云十力世雄所說空義者五陰諸行從因緣生緣離即滅此偈上兩句諸行等是流轉門夫生必滅滅已更生滅生無滅無滅無生即寂滅樂下兩句生滅滅已寂滅為樂者是大涅槃還滅門

也又上半偈破昔常倒即除常見後二句破昔無常倒即除斷見又前半生滅舉體皆空後說涅槃相無性有情無理有

今엔 **知心是佛心**이라 **定當作佛**호라ㅇ 疏今知心是佛心定當作佛者由所悟心不生不滅名為本覺全是諸佛之心以此為本修行決定成佛然自心是佛之言據其文甚多謂華嚴出現品云應知自心念念常有佛成正覺等也涅槃中佛讚純陀心同佛心其定當作佛亦全句是涅槃文云凡是有心定當作佛故此云爾ㅇ 아리ᄃᆞᆫ 道ᄅᆞᆷ이 無ᄆᆞᆫ 常ᄲᆞᆼ이라ᄒᆞᆫ 行ᄒᆞᆼ이 ᄒᆞᆫ 一ᄒᆞᆫ 定ᄃᆞᆼ하ᄂᆞᆫ 이ᄅᆞᆫ 것ᄉᆞᆫ 미ᄉᆞᆫ 이ᄇᆞᆫ 덧ᄆᆞᆫ 수ᄉᆞᆫ 기ᄇᆞᆫ 터ᄃᆞᆫ 외ᄋᆞᆫ 로ᄆᆞᆯ 아ᄅᆞᆫ 라

疏然佛下四漸修解行

然이나 **佛**을 **稱種智**ᄃᆞᆫ **修**ᄂᆞᆫ **假多聞**이시ᄉᆞᆫ ㅇ 於中初二句立漸修之理稱種智者佛果位中梵云薩婆若唐

言一切種智也然據大品等經具有三智謂一切智道種智一切種智初是聲聞次是菩薩後是如來今云種智意取一切種智也如來雖兼前二且簡異二乘菩薩而標最勝修假多聞者既一切皆達具一切種智方名爲佛故修因必須假藉多聞況華嚴第三地經文正以多聞爲菩薩行之初門展轉五重推尋度生之行始自多聞故也彼文云菩薩如是厭離一切有爲惑念一切衆生知一切智智有勝利益欲依如來智慧救度衆生作是思惟此諸衆生墮在煩惱大苦之中以何方便而能拔濟令住究竟涅槃之樂便作是念欲度衆生令住涅槃不離無障礙解脫智不離一切法障礙解脫智不離一切法如實覺覺不離無行無生行慧光不離禪善巧決定智不離善巧決定智不取聞多

聞慧也由此發前思修等慧故若順而言生聞慧也由多聞則由此發禪智由禪智故發無生慧故以覺法性由覺法性一切性一切衆生也菩薩如是觀察了知已倍於正法勤求修習日夜惟願聞法喜法樂法依法隨法解法順法到法住法行法善薩如是勤求佛法所有珍財皆無悋惜不見有物難得可重但於能說法人生難遭想故內外財無不能捨無有恭敬而不能作無有勤苦而不能受若聞一句未聞之法心生歡喜勝得三千大千世界滿中七寶設輪王位若有人以七寶施如是求法如其所聞觀察修行乃至於空閑處作是思惟如說修行乃得佛法非但口言而可清淨云多聞能知法多聞能離罪多聞捨無義多聞得涅槃智論說多聞無慧有慧無聞皆不知實相有慧多聞方知實相無聞無慧是人中牛上說心地開通是頓悟門即有慧也故

今云修假多聞明漸修之門也又相傳路逢羅刹之事亦是多聞之益華嚴問明品云非但以多聞能入如來法者此明不斷煩惱之失非毁多聞言非但者意使隨聞而修也

故復行詣百城ㅎ야 **坐探群籍**ㅎ야○疏故復修也言故復者前已云心地開通義天朗耀然由成佛之因假多聞故復須行詣等也行詣百城者是巡國邑叅善知識求學法門也行詣之言是淨名經中佛遣使問疾之語一云汝行詣維摩詰問疾今務在用經典正文兼圖對下坐探之言故云行詣也百城者即華嚴經善財童子展轉南行求善知識經一百一十城今但言大數矣言坐探羣籍者問道求法即行披覽典教是坐亦意在以行坐爲對也宗密比所遇釋門中典籍未有不探討披覽且終南山智矩寺誓不下山徧轉藏經三年願畢方下雲居草堂豐德等寺又經三年半皆是尋討聖教餘隨處隨時不可具記自年十七八乃至今日未曾斷絶故云探羣

○그러나부터를種종智지라니름도닷고모해드루믈보듣실사또는녀籍

百빅城썽에가며國귁邑읍에든녀善썬知디識씨빠야法뻡門몬비호마라안자

安ㅎ야○講濫泰나 **學且師**ㅎ야 **講雖濫泰**나 **且師**ㅎ야

疏講雖下五宗師印可

泰淄州半徧沼彼是聰慧上德不聽而講余是愚末之流宿生有少緣種披尋華嚴章疏薄見端倪未見疏主師承之時在襄州東都先以輒講兩徧事迹似於古德而賢愚不齊故云濫也而云雖者明有稟承復非不聽而已故次云學且師安也謂元和五年於襄州初講一徧六年於東都再講躡迹(躡迹所述之可依)然後入上都親事疏主數年請益初二年間晝夜不離前後雖於諸寺講傳有疑

則往來咨問不絶言師安者即道安法師當代天下所宗自後時人皆云學不師安義不中難

叨沐猶吾之納

內ㅎ고○疏叨沐猶吾之納者東都日因講次有門人奉恭斷臂慶法留守中云華嚴門下慮宰相尋問疏主虛實疏主既未委識恐不招承遂修狀具述所領解二十卷疏中關節大部經文品會血脉七八紙來差小師玄珪智輝申上疏主以明講非孟浪疏主連牋批示云得書領大教旨趣說傳讚誠感悽然心納矣吾自傳揚或面言心受或展轉分照盈乎異域

然仲尼傾盖伯牙絶絃賢古人之雨之意在相見故知音者之稱也亦藉形聲矣雖玄云通道合亦藉形聲之聲便領語意未見吾形未聞吾說法之聲故不面而傳得旨繫表意出於繫象之外也旨意猶吾心都似解也異覩未之有也即超古此之是繹明繹曰今言叨沐等者此是書中語意以書中云意猶吾心

及悽然心納故今云爾叨沐之言是自敘下情叨盥蒙此印許爾

謬當真子之印

ㅌㅣㅇ疏謬當真子之印者即疏主書次前云非憑聖力必藉宿因當自慰爾轉輪真子可以喻也釋曰謬當者亦是自敘淺劣非其分也虛謬當斯語矣轉輪真子即大經舉喻說十地菩薩受位如轉輪聖王有千子其中取嫡夫人生年最大者一人方受灌頂紹輪王位疏主今用此事言轉輪者約喻即轉輪王之位約法即紹繼轉法輪之位如禪宗祖代相傳一人繼嫡矣言真子者即如嫡夫人所生也印者即書末云儻得一面印所懸解復何加焉如忽緣阻但當心契玄極豈山河形聲所能隔哉

○講ㅎ고ㅇ은비록 泰ㅌㅐㅇ예 汎ㅂㅁ 濫ㄹㅏㅁ호ㅣ나 ㅂㅐ서ㄹ 傳ㅂㅕㄴ호ㅣ 小ㅅㅣ 蒲ㅂㅗㅇ 州ㅈㅜㅇ ㅅㅣㅁㅣㄷㅣ 아ㅣㄴㅣ호ㅣ 泰ㅌㅐㅇ 와 淄ㅈㅣㅇ 州ㅈㅜㅇ ㅅㅣㅂㅣㄴ 半ㅂㅏㄴ 만ㅣㄴ호ㅣ 沼ㅈㅗㅇ ㅣ라ㅎ고ㅣ 이ㅣ 聰ㅊㅗㅇ 慧ㅎㅣㅇ 호ㅣ ㄴㅗ ㅍㅗ 德ㄷㅓㄱ 이라ㅎ고ㅣ 이ㅣ 라ㄷㅡㄹㅣ 아ㅣㄴㅣ 호ㅣ

야講강ᄒᆞ야ᄂᆡ와나는어린그텟무리언머
른어릿生생애쟈근因인緣연이아ᄉᆞᆯᄉᆞ華
황嚴엄人疏소를펴더ᄃᆞ머잠간그ᄃᆞᆯ보고
疏소主쥬보아ᄇᆞᆫ호ᄃᆡ아ᄂᆞᆫᄒᆞ야ᄉᆞᆫ제몬저
두버늘講강호ᄂᆡ이리古고德ᄃᆞᆨ에곤호ᄃᆡ
아ᄃᆡ롬과어류ᄆᆡ그ᄌᆞ기아ᄂᆡ홀ᄉᆞ늘오ᄃᆡ
況황濫람이라泰태와沼죠와는ᄃᆞ시ᄇᆞᆺ사ᄅᆞ
ᄆᆡ일후ᄆᆡ오疏소主쥬는華황嚴엄疏소主
쥬澄띵觀관이라▣비ᄒᆞ몬安한을ᄉᆞ승사
마▣安한을ᄉᆞ승사ᄆᆞ몬晉진人道쥬安한
法법師승ㅣ當당代띵옛天텬下황ᄋᆡ웃ᄃᆞ
ᄆᆡ러ᄂᆡ後황옛사ᄅᆞ미ᄃᆞ닐오ᄃᆡ비ᄒᆞ오ᄃᆡ安
한을ᄉᆞ승아ᄂᆡᄒᆞ면義의ㅣ詰킬難난애맛
ᄃᆡ몬ᄒᆞ리라ᄒᆞᄂᆡ澄띵觀관을너겨ᄂᆡ르ᄂᆡ
라▣날ᄀᆞᆫ다許허호ᄆᆞ를너무님고▣날ᄀᆞᆫ다
ᄒᆞ몬澄띵觀관이圭궤峯풍人書셩를對됭
答답호ᄃᆡ뿐ᄃᆡ내ᄆᆞ숨곤다ᄒᆞᄂᆡ라▣真진
子쥥人印한을虛허히當당호ᄂᆡ▣真진子

쥥ᄂᆞᆫ澄띵觀관書셩에날오ᄃᆡ轉ᄃᆞᆫ輪륜眞
진子쥥ㅣ어루가ᄌᆞᆯ바ᄅᆡ라ᄒᆞᄂᆡ轉ᄃᆞᆫ輪륜
真진子쥥ㅣ어루가ᄌᆞᆯ바ᄅᆡ라ᄒᆞᄂᆡ轉ᄃᆞᆫ輪륜眞
천아ᄃᆞᆺ中듕에嫡뗙夫붕人신人나ᄒᆞᆫ나히
ᄆᆞᆺ하ᄂᆡᄂᆞᆫ나ᄒᆞᆯ取쥥ᄒᆞ야輪륜王왕位윙를
ᄉᆞᆺᄂᆞᆫ니라印한은澄띵觀관書셩人그ᄃᆡ날
오ᄃᆡᄒᆞ다ᄒᆞᆫ번보아머리아로ᄆᆞᆯ印疏
한ᄒᆞ면ᄂᆞᆫ오ᄒᆞ야ᄆᆞᆺᄉᆞ기더으료ᄒᆞ니라再
逢下三釋造疏之意

再逢親友

ᄒᆞ야○再逢
親友者用法
華經五百弟子授記品繫珠喻領解得記之
事以申今意也彼經云辟如有人至親友家
醉酒而卧是時親友官事當行以無價寶珠
繫其衣裏與之而去其人醉卧都不覺知起
已遊行至於他國爲衣食故勤力求索甚大
艱難若少有所得便以爲足於後親友見之
而作是言咄哉丈夫何爲衣食乃至如是我
昔欲令汝等五欲自恣於某年月日以無價

寶珠繫汝衣裏今故現在而汝不知勤苦憂惱以求自活甚爲癡也汝今可以此寶貿易所須常可如意無所乏少下法合可知釋曰繫珠有二說一約結緣釋則圓解爲珠與說爲繫煩惱心中聞熏爲醉酒五道求樂爲勤力艱難證小涅槃不求大果爲得少爲足後聞說法華爲遇親友示以知見爲得珠以因易果所樂皆得二約天真本性釋然昔繫有時珠則本有昔時妄想心聞之未悟即云都不覺知已成堅種如繫未得契合本體如在衣中曾聞法故願求善福爲衣食調伏故艱難今再遇本緣爲親友餘大同前釋然此人蒙繫珠之時已是初遇親友故於後親友見之而作是言等是再逢也余亦如是以今現事驗於昔因定知宿世曾聞疏主言教所以今生聞之即解故云再逢矣

彌感佛恩

ㄅㄨㄣ ㄅㄨㄣ○疏彌感佛恩者彌者是轉深之義謂未講華嚴已前或因轉讀或因聽聞每見經文說佛恩深又自慶聞法已感佛恩今因再逢善友親講華嚴宗部深見諸佛菩薩多劫苦行弘護大法哀愍衆生之迹又悟大教義味無邊畧非釋迦降迹出現演說此門而我何由得至此地

久慨孤貧

ㄐㄧㄡˇ ㄍㄨ○疏久慨孤貧故所感恩彌深彌厚將陳法施下皆是報佛之事故智論云假使頂戴經塵劫身爲牀座徧三千若不傳法化衆生畢竟無能報恩者慨者是無聲之歎孤貧者華嚴三地經云菩薩見如來智慧有大利益有爲過患即於衆生起十哀愍心所謂見諸衆生孤獨無依生哀愍心見諸衆生貧窮困乏生哀愍心

將陳法施

ㄐㄧㄤˋ ㄔㄣˊ ㄈㄚˇ ㄕㄧ○疏將陳法施者將猶欲也陳

者陳設之謂也法施者運清淨心無希名利之垢以法施他故名法施菩薩戒序云財法二施等無差別又大法炬陀羅尼經云譬如商家以財求利歲月漸增庫藏充實拯濟多人若不商販財利不增後值飢荒喪失家業彼說法者亦復如是應常宣說不得休懈若常說法法則增長利益人天若不宣說法則衰殄然財法二施多施嘗(二施出世功德成就色身法施成就法身)

○親친華황經경에닐오ᄃᆡ가ᄌᆞᆫ비ᄀᆞᆫ댄사ᄅᆞ미親친ᄒᆞᆫ버ᄃᆞᆫ지ᄇᆡ기술醉쥉ᄒᆞ야누엣거늘이ᄲᅵ親친ᄒᆞᆫ버ᄃᆞᆫ그ᄋᆡ윗일로ᄂᆞ갈제값업ᄉᆞᆫ寶봉珠쥥로옷안해ᄆᆡ야주ᄀᆞᆯᄋᆞ니거늘ᄀᆞᆯᄋᆞ사ᄅᆞ미醉쥉ᄒᆞ야누어셔아ᄃᆡ몯ᄒᆞ야니러ᄂᆞ녀다ᄅᆞᆫ나라해가衣힁食씩ᄌᆞᆫ太ᄃᆞ로ᄇᆞᄅᆞᄌᆞ러나녀求꿍ᄒᆞ야甚씸히艱간難난ᄒᆞ티니後흥에親친ᄒᆞᆫ버ᄃᆞᆫ이丈땅夫붕ㅣ여엇뎨衣힁食씩爲윙ᄒᆞ야

이ᄀᆞᆫ호매니르ᄂᆞᆫ내네널로五옹欲욕을ᄀᆞ장괴호려ᄒᆞ야아ᄆᆞᆫ모年년月월日싈에값업ᄉᆞᆫ寶봉珠쥥로네옷안해ᄆᆡ요니이제現현在찡ᄀᆞ늘네몰라受쓩苦콩ᄅᆞ아니사ᄅᆞᆷ들ᄒᆞ야사로ᄆᆞᆯ求꿍ᄒᆞ느니甚씸히어리도다네아이제아ᄇᆞ비로ᄲᆞᆯ것밧고ᄆᆞᆫ샹녜어루ᄲᆞᆯ다네아이ᄒᆞ야업ᄉᆞᆫ것업ᄉᆞ리라ᄒᆞ니라부텻恩은을다욱感감ᄒᆞ수와孤공貧빤을오래애와ᄃᆞ려져머셔아비업슬ᄉᆡ孤공ㅣ오艱간難난ᄒᆞᆯ시貪빤이니라衆중生싕은諸졍僧뿅慈쫑尊존이머ᄅᆞ실ᄉᆡ孤공ㅣ오福복慧휑업슬ᄉᆡ貪빤이라法법施싕는淸쳥淨쩡ᄒᆞᆫ마ᄉᆞ미니라名명利링ᄂᆞ라는ᄲᅵ업ᄉᆡ니ᄒᆞ야法법으로ᄂᆞ미게布봉施

疏소集下二明且造諸疏爲此疏之資緣也即是明法施之事謂善述名教以訓後來令佛種不斷

採集般若

般若者由見ᄒᆞ며○采集

般若破相是諸佛母祖師深讚遂以元和十四年於興福寺采集無著天親二論大雲等疏肇公等注纂其要妙以釋金剛般若經也勒成疏一卷鈔一卷

綸貫華嚴

○疏綸貫華嚴者由見華嚴稱性之法挾廓宏遠實可宗承以文富義博學者難見涯畔但攻章鈔迷於經意致令後輩輕於大經云講華嚴涅槃者但是轉經之流或云卷經之輩故長慶二年於南山豐德寺以疏中關節綸次貫於一部經文令講者剋意記持經文以將釋於此疏勒成五卷題云華嚴綸貫提挈毗尼○疏提挈毗尼者因編討大毗尼藏五部律等聽四分新章見律文繁廣事數重疊或是天竺風俗之事不關此方傳者騁於重重句數致令修持者不知剋實要用之處遂以長慶三年夏於豐德寺因聽次采集律文疏文取修行人要行用者提舉纂出接引道流勒成三卷

發明唯識

○疏發明唯識者然唯識宗旨釋教之綱諸論浩瀚諸師差別致使學者但於部帙句偈熟習唯識之名言不就自心尋伺諸法唯是我心識之行相遂以元和十四年冬至十五年春於上都興福寺保壽寺采掇大論大疏精純正義以釋三十本頌勒成兩卷顯發彰明唯識宗趣令人易見諸法唯是自心之義理故云發明唯識○

般若論

○疏般若論者大雲公註

金剛般若論

○疏金剛般若論者大雲公註

綸貫華嚴

○疏綸貫華嚴者次第部經文中間間記持文句要略五卷

律를文문ㅅ疏소를모화修슗行행ᄒᆞ샤르
ᄆᆡ조ᄉᆞ르이行행ᄒᆞ샤三삼卷
권을밍ᄀᆞ니라 唯웡識식大땡論론大땡疏소에精졍
純쑨ᄒᆞ正졍ᄒᆞ뽀들ᄀᆞᆯ히야三삼十씹本
須쑹올사겨兩량卷권을밍ᄀᆞ니라
疏然醫下三正述本意本意初舉喩然이나醫方萬品
在圓覺也於中二
에宜選對治여海寶千般애先求如意니○如人
有病詣大醫家但應求治自病之方買藥調
合不可見他千卷萬卷方書且貪從頭尋讀
辨別若如此者讀未徧而病增身死又如人
入海采無價珠而大海之中珍寶無量若見
之即取聞名即尋則終身皓首死於海中何
日得歸閻浮濟於貧乏但應求摩尼珠得即
持歸自然千珍萬寶要即充足所以者何摩
尼梵語此云如意意中所要財寶衣服飲食

種種之物此珠即能出
之如意而得故云如意○ㄱ리나醫힝方방
萬만品품에모로
매마ᄌᆞ고ᄃᆞᆫ몰ᄀᆞᆯ히요ᄅᆞ디며바ᄅᆞ보비一힐
千쳔가지예몬저如영意힝를求꿍ᄒᆞᆯ디니
梵뻠語엉엔摩망尼니오에서닐오만如
영意힝니ᄠᆞ데求꿍ᄒᆞ논쳔량ᄉᆞ보비衣항服
뽁飮음食씩갓갓物물을이ᄀᆞᄉᆞ리能능히
내아ᄠᆞᆯᄀᆞ티어들ᄉᆡ닐오ᄃᆡ如영意힝라
疏觀夫下二法合
觀夫文富義博은誠讓雜華니니와어
指體授機ㄴ無偕圓覺ㅎ니○將欲弘闡法
門揀其要妙圓通了
義莫尚華嚴西域此方古今三藏大德皆判
爲最具如彼疏懸談所敘然且部帙浩瀚義
理縱橫初心之流造次難入如大海中一切
珠寶不可總求不如此經一道頓入會相歸
性泯念全真影像亦空覺所顯發覺圓明故
煩惱冰銷妙用神功一生可獲故前云海中

先求如意也文富者八十卷文義博者五周因果五教十玄誠者實也讓者推讓雜華者涅槃等經指華嚴爲雜華經謂萬行感果如天地所生一切諸華萬德嚴身如金玉繒綵一切諸華故云雜也意言若約文義富博誠知不及華嚴若取指示覺心之體以投頓悟初機即不如圓覺故苦留心偏頗弘此是其本意矣○보니그리가스부처ㅣ디너부처ㅣ진실로雜習華ㅣ니와

雜習華ㅣ는華嚴經이니萬行이果과를感하야一切諸華ㅣ니萬德嚴身이니萬장嚴엄호미金금玉옥과同ㅣ니一切체한고지곤홀시닐오ㄷ雜習華ㅣ라機긍에마ᄎᆞᆫ圓원覺각애곰디몯ᄒᆞ니로

疏故參下四正製此經疏也

參詳諸論ᄒᆞ여反復百家ᄒᆞ야以利其器ᄒᆞ고方

爲疏解ᄒᆞ니○根本始自元和十一年春於南山智炬寺以筆科判及搜檢四家疏義集爲兩卷私記檢之以評經文被於禪學之輩中間至長慶二年於草堂寺再修爲疏及開數十段章門至三年秋冬方得終畢言諸論者起信唯識寶性佛性中觀智度瑜伽攝大乘等也百家者諸家章疏及諸觀門箴論讚頌諸所述作建宗立義等文卷當途要者無不徧尋言衆詳及反復者集之對此詳彼飜覆再三研味宗趣審度得失如南容三復白珪之例也白珪者毛詩云白珪之玷尚可磨也斯言之玷不可爲也南容讀詩至此章句再三反復指示其心使慎言也以利其器者論語云工欲善其事必先利其器此明欲造圓覺疏故十數年來先習諸教以利其智以廣其學方制裁其疏也○그럴論ㄴ을마ᄎᆞ아行ᄒᆞ細셰히ᄒᆞ며百백家강論ㄴ을ᄃᆞ사곰ᄒᆞ야그ㄱ그ㄹ슬ᄃᆞᆯ나개코사

론語엉에닐오되工공匠짱바지ㅣ이를이
대고져홀딘댄반드ᄉᆞ기몬저그그ᄅᆞ슬ᄂᆞᆯ나
ᄒᆞ야ᄂᆞ니라ᄒᆞ니라■비ᄅᆞ 疏冥心下五
ᄉᆞ疏ᄉᆞ解ᄀᆡᆼ를맣ᄀᆞ로니 明疏之宗趣
分齊也

冥心聖旨ᄒᆞ며 **極思研精**ᄒᆞ야 **義備性相**ᄒᆞ고
禪兼頓漸ᄒᆞ야 ○初二句標意冥心聖旨者
全忘己情以求佛意也極思研精
者極其智思研磨精鍊遂得文無重疊義無
繁雜廣而不剩畧而不闕也然其文勢即禮
記月令序云臣等虔奉綸旨極思研精愧無
演暢之能謬承討論之寄次二句云義備性
相禪兼頓漸者正明義之分齊性相者兩宗
經論中義門也頓漸者南宗及天台止觀妙
旨也疏中所立章門二十三科多歷五教故
云具性相也頓漸者疏中釋經初四章及清
淨慧章洞徹南宗頓門理性其三觀諸輪道
場加行周備南北禪門及天台觀門修定漸

次出入門之行相也然南宗及天台雖亦自
具頓悟漸修之意然南宗頓顯漸密天台頓
理又便屬經論中義故今但指○只今皇聖
頓門爲南宗也故云禪兼頓漸 ○성人ᄉᆞᆫ人
ᄇᆞᆫ데어ᄂᆞᆯ우ᄆᆡ ᄇᆞᆫ들ᄋᆞᆫ징極ᄀᆞᆨ이ᄒᆞ야ᄀᆞᆺ다
ᄃᆞ ᄆᆞ ᄀᆡ精ᄌᆞᆼ히ᄒᆞ야ᄇᆞᆫ디性ᄉᆞᆼ과ᄀᆞᆺ과相ᄉᆞᆼ과ᄀᆞᆺ고
禪ᄉᆞᆫ을頓ᄃᆞᆫ과漸 疏勒成下六結前生後
ᄌᆞᆷ과ᄀᆞᆯ兼ᄀᆞᆷᄒᆞ야 謂結成大疏生起略疏
之意文二
一結成大疏**勒成三卷**ᄒᆞ야**以傳強學**ᄒᆞ노니○其三
卷之文約二百一十餘紙已傳強學者疏成
已經三年習學者約有其百覆講者亦有七
八皆是曾習禪理及講經律論者今各現傳
持不輟故云強學強學之意即根性明利志
氣精強勇猛堅固與其進不與其退之謂也
其文即禮記云強學而待問今用此語也今
意云如此強學之流方能傳得大疏復恐有
雖志願傳習根性稍劣力不任者復應刪略

簡要以被之然此意雖在次下之文今結前中已含生起之意故云結前生後也○
三삼卷권을을위세우 疏소然연上상下하二이敘서略략
비흘개傳뗤호노니니 疏소三삼 初초且차敘서所소
被피之지機기 然연이나 上상中중下하品품에 ○學학者자根근性성既기殊수須수
機기器기勝승者자爲위上상品품平평平평者자爲위中중下하品품今금且차約약
一일類유可가學학者자言언之지故고但단標표三품品품若약委위細세具구收
復복應응有유上상上상中중乃내至지下하下하九구品품也야 根근과 欲욕과 性성과 殊수
性성殊수者자上상句구是시豎수明명勝승劣열下하句구是시橫횡說설差차殊수
根근者자一일向향發발起기聖성道도之지根근欲욕者자樂락欲욕性성者자種종
性성三삼義의各각別별故고云운橫횡也야是시十십力력中중三삼種종力력所소
知지之지境경初초即즉諸제根근勝승劣열力력謂위信신進진念념定정慧혜五오
根근有유二이中중下하故고云운勝승劣열次차即즉種종種종解해智지力력亦역
名명勝승解해即즉樂락欲욕也야謂위若약從종他타起기信신以이爲위其기先선
成성下하中중上상愛애樂락種종種종勝승解해亦역名명欲욕欲욕謂위喜희欲욕
好호樂락如여或혹貪탐財재利이或혹好호名명聞문好호定정好호慧혜種종種종

不불同동後후即즉種종種종界계智지力력界계即즉性성也야謂위或혹一일三삼
四사五오乘승性성等등或혹貪탐瞋진癡치等등分분行행等등乃내至지八팔萬만
四사千천行행名명種종種종性성性성即즉種종子자樂락欲욕即즉○그러나上상
是시現현行행此차上상皆개依의瑜유伽가等등諸제論론所소釋석
쌍中중둥下쌍品품픔에根근과欲욕과性성괘
다를시 ■根근은 ㅡ에 힘向향호야聖성道도픔괘
를니르왇는根근이니信신과進진과念념
과定정과慧혜왜라欲욕은즐길시니니시혹
쳔량즐기며慧혜즐고미定정
즐기며慧혜즐고미種종이호가지아
니라性성이니시혹一힘와三
삼과四사와五오왓乘씽엣性성等등이며
시혹貪탐瞋진과癡치等등分뿐괏行
혱等등이며八팔萬만四사千천行혱애니
르로미일후미種종種종性성이라 疏소今금將장下하二이正정
敘셔能능被피之지疏소 今금將장法법
彼피由유成성하며從종其기易이簡간
者자則즉也야 ○初초二이句구敘셔意의法법
彼피者자周주

易繫辭中所說天地之化委曲成就萬物而不遺漏今取彼為則而倣効之故以大疏小疏屈曲隨於機宜皆令悟解成就佛道故云能法彼曲成也故彼繫辭云易與天地準故能彌綸天地之道密如仰觀天文俯察地理等云云乃至範圍天地之化而不過曲成萬物而不遺韓康伯云範圍者其理也則曲成者乘變令釋曰以擬應乾物天地繫而一周方備者其性也山意是明聖人則天法地以濟萬物故得各隨其類普皆成益故云曲成從其易簡者正明撮略之意意在簡畧易解故云從其易簡易簡之文亦是繫辭彼意說天地之道甚易甚簡無為而化順物之情成其功業彼文云其業成則入其德業既成則入其德業以賢人之理明其德業故曰業形易簡而天下之理得矣簡天下之理而各得其所故曰業也易釋曰既合天道而化則易簡也故道經云大道甚易行而天下莫能行又云大道甚夷而人好徑故知但一向尋求經意順理直釋不須廣敘諸家繁述名相則易簡矣問甚深法義難解難入云何言易荅順佛善善巧方便於難解法中令得易解方名善說豈可以著述演說令人皆不解會邪名妙邪所以優波鞠多說法聞者百千萬億之數皆得悟入馬鳴菩薩亦然佛會中亦然今有矜誇難解以為深妙者是障道之流也即知法有深妙而易解有麤淺而難解有淺而易有深而難由說之差當述之一巧拙也且如高僧傳中慧休聽大乘經論一編入神聽律三十編未解豈可云律部深於經論邪問既知如此今何不但作略疏直釋經文而乃先為廣疏邪荅上句豈不云根欲性殊邪良由名相漸次之疏論已編入間彼

一類人固執先聞拒而不信故爲開章一一會釋令歸一極有不執者即令從此要略直入是爲法彼曲成而無遺也

更搜精要直注本經

疏更搜精要直注本經意以消其文各隨科注於本文之下令覽者易見免別看經本疏本尋求科段矣文前雖有略叙義門比大疏十中刪八故云更搜精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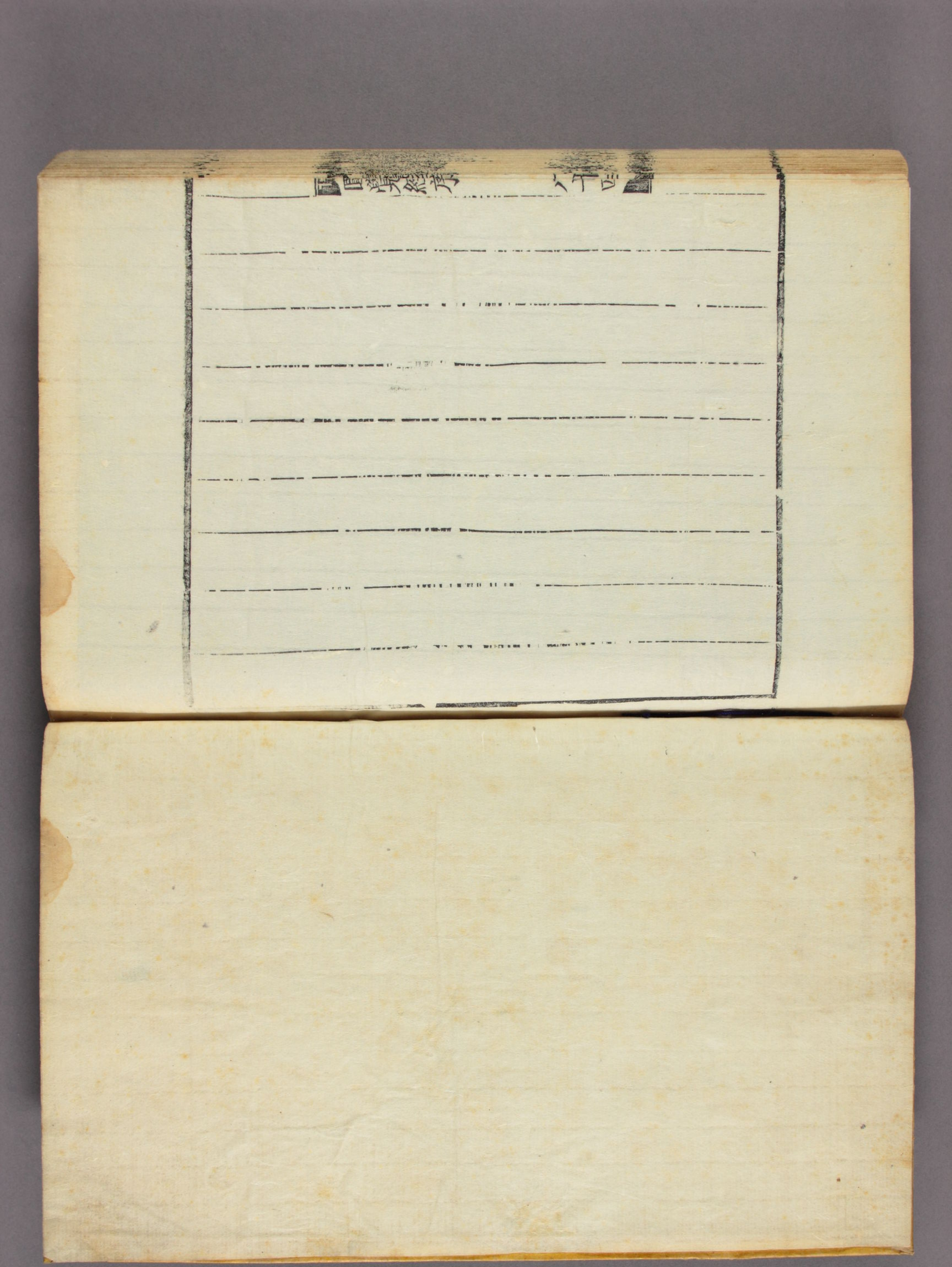
○제장大더委휭曲콕히일우몸法법바
○ㅁ며周죵易역에늴오ㄷ天탄地띵人바
化화ㅣ萬만物물을委휭曲콕히일우고기
ㅌㄷㅇㄴㅌㅎㄴㄴ라 씨우며簡간호몸조
ㅊㅌㅅ精졍微밍호ㅈㅅ로ㅅ오늴더
ㅌㅇㅂ本본經경에바ㄹ사기노니라 疏즈庶즈
三결結成

其益

疾即事即心이며**日益日損者矣**ㅇㅣ라

佛불說셜教교本본是셩詮전心심良량由유心심有유無무量량義의門문故고展전轉전辨변明명便편成셩多다種종事쓩數쑤學학者자尋씸文문尋씸義의迷미本

所소詮전之지心심故고今금節절指지歸귀於어心심今금學학者자每매尋씸事쓩義의一일一일見견心심如여律률部부千천章장萬만句구皆개在재行행門문故고今금著저述셩講강說셜鈔초者자但단廣광列렬句구數쑤廣광生생義의解해令령學학者자貪탐尋씸句구義의而이迷미戒계行행故고南남山산鈔초主주刪산繁번補보闕궐令령學학者자即즉事쓩即즉心심也야然연律률制제身신口구但단明명其기行행今금修수定정即즉事쓩即즉心심也야日일益익日일損손者자老로子자經경云운爲위學학日일慧혜意의在재契계心심也야故고彼피云운即즉事쓩即즉行행此차飜번於어彼피云운即즉事쓩即즉心심也야日일益익日일損손爲위道도日일損손今금借차彼피語어意의以이損손爲위斷단惑혹日일益익爲위成셩智지日일損손爲위斷단惡악日일益익爲위修수善선皆개是시損손爲위離리過과益익爲위成셩德덕矣의 ○ㄱㅣ으ㄱㅡ근ㅁㅡ이ㄹㅣㄹㅗㄷㅓㄹㅡㅁㅣㅇㅣㄹㅏㄴㅡㅁㅣㅇㅣㄹㅏㄴㅡㅁㅣㅇㅣㄹㅏㄴ



昭和七年十二月十日 印刷
昭和七年十二月十四日 發行

全羅北道全州郡安心寺藏板

京城壽松洞四十四番地
佛教社韓龍雲發行

京城壽松洞二十七番地
鮮光印刷株式會社印刷